

제1절 목포 음악계의 흐름과 활동

김장성 | (사)한국예총 목포음악협회 지부장

제2절 목포 연극계의 흐름과 활동

강대흠 | (사)한국예총 목포연극협회 지부장

제3절 목포 무용계의 흐름과 활동

정영례 | (사)한국무용협회 전남지부 상임고문

이숙진 | (사)한국무용협회 목포지부장

제4절 목포 한국음악(국악)의 흐름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제5절 목포 노래, 목포 가수

장유정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교양학부 교수

제6절 목포의 극장과 동춘서커스

위경혜 |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제7절 마당극을 통한 목포민속예술의 발현과 의미

유수영 | 다온아리랑 대표

제2장 공연 예술

제1절 목포 음악계의 흐름과 활동

음악은 사전적인 정의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음과 소음을 소재로 하여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그렇다고 모든 소리가 소재로 쓰이는 것은 아니며 주로 악음(樂音)에 한정되지만, 악음의 종합이 그대로 음악이 되는 것도 아니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의 정신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음악은 시대나 민족에 따라 다양한데 그것은 각기 그 시대나 민족이 어떻게 독자적인 형식으로 소리를 포착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음악은 또 일반적으로 ‘시간 예술’로 불리고 있다. 음악은 소재인 소리의 순수성에서 시간적인 성질에 바탕을 둔 가장 단적인 시간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목포의 음악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록해 두는 것은 목포의 과거 생활상을 짐작하고 발달 과정을 아는데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음악 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기록(또는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음악은 서양음악이며, 음악의 주요한 부분인 ‘우리나라 음악’은 본 목포시사의 ‘국악’과 ‘무용’ 부분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두 번의 시사에서 정리된 지난 기록들에 대하여는 새롭게 제시되거나 확인된 부분이 없어 기출판된 두 번의 목포시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목포시사에 기록하거나 언급한 이외의 활동들도 많겠으나 오래 전의 활동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수록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1. 목포의 음악 활동 I (1950년대~1983년)

광복 이후의 목포 음악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순수음악 분야이고, 두 번째는 대중 음악 분야이다.

목포의 음악 활동 가운데 순수음악 분야에는 학교의 음악 교육이 주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1884년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첫발을 내디딘 후부터가 우리나라 서양음악의 시작 시기라 볼 때 학교의 음악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학교 교육에서의 음악 교육은 우리나라 음악(국악)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목포의 음악 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각 학교마다 개교 기념 행사를 비롯하여 학예회, 음악회 등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분야가 음악이었다. 학교 행사 가운데 음악은 독창, 합창, 기악연주를 비롯하여(규모는 작지만) 가극도 끼어 있었다. 이러한 학교 음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1948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던 목포여자중학교 개교 28주년 기념 음악회이다. 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이 음악회는 실제로 연극과 무용까지도 포함한 하나의 예술제였다.

고등학교 학제개편 이전이었던 당시, 시내 중학교에 평균 30~40명으로 취주악대(브라스밴드)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한 학교의 취주악대는 목포중학교, 목포상업학교, 목포문태중학교였다. 특히 문태중학교 취주악대는 1949년 8월 정부수립 1주년 기념으로 당시 공보처가 주최한 전국 취주악대회에 목포대표로 선발되어 음악교사 이천백의 인솔 아래 40여 명이 열차편으로 서울로 올라가기도 하였다.

당시의 문태중학교 음악 교사였던 이천백의 활동은 학생들의 음악 교육과 함께 시민들에게 음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6·25전쟁 때에 실종되고 말았다.

1949년 8월 27일~28일 2일간 대한청년단목포시단부가 목포기자단, 목포방송국 등의 후원으로 목포극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에는 목포시내의 초·중등학교 음악 교사는 물론 일반 음악 전문인들도 모두 참여하였다.

1947년 2월 12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가 서울에서 결성되고 목포에서도 전란의 와중인 1951년 1월 27일 예술과 창작활동의 의욕을 가진 이들이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부를 결성하였다.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부를 결성하여 지방 예술인들의 단합과 창작활동의 의욕을 불태우던 그 때, 3월 1일에는 3·1절 기념 종합예술전이 개최되었다. 3·1절 종합예술전에서는 교향곡 「자유」(이호섭 작곡)와 목포 국악연구소의 「유관순」, 그리고 연극 「별은 밤마다」(차범석 작) 등의 작품들

이 목포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목포여고 강당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이동욱(회장), 최경산·이영기(부회장), 김복태(총무), 오세립(부총무), 조기순(연구부장), 양성기(섭외부장), 송춘섭(재정부장), 정갑순(선전부장) 등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1955년 9월 6일에는 목포음악가협회가 창립되었다. 목포음악가협회의 창립을 전후하여 발족했던 사진, 연극, 무용 등의 단체들이 지방 실정에 맞는 향토적 연합체를 만들자는 뜻에서 1958년 9월 15일 현재의 목포신안예총의 전신인 목포문화협회를 만들었고, 이때 음악가협회 소속의 최경산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당시 활동했던 음악가협회 회원은 김장섭, 송춘섭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목포음악협회의 활동으로 눈에 띄는 것은 「목포시민의 노래」를 작곡한 일이다. 1960년대 초반 시인 권일송이 노랫말을 짓고 목포음악협회에서 곡을 붙인 「목포시민의 노래」는 1953년 5월, 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공식화 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목포시민의 노래」는 음협 작곡으로 되어 있어 작곡가를 알 수 없지만 한국음악협회 목포지부로서는 목포에 매우 의미 있는 기여로 여길 만하다.

한편, 목포지방의 일간 신문으로 1899년 6월 16일 『목포신보』로 창간했던 『호남매일신문』은 1946년 8월 1일자로 『목포일보』로 새롭게 출발한 뒤 우여곡절 끝에 『호남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으나 1973년 5월 31일 폐간했다. 오랜 역사와 함께 이 지방 유일의 일간지였던 『호남매일신문』은 여러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음악 행사들이 있었다.

- 1964년 11월 26일 문학과 음악의 향연(지방문화인 30명 참여)
- 1965년 5월 9일 서울시립교향악단초청 대연주회(지휘: 김만복, 단원 1백여 명)
- 1965년 8월 16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부른 가요를 엮어 광복경축예술제 개최
- 1965년 10월 28일 소프라노 김천애 독창회
- 1965년 12월 28일 제2회 송년 문학과 음악의 밤 개최(문학인 20여 명 참여)
- 1966년 8월 20일 서울여성스트링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1967년 7월 15일 서울중앙여자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초청 대연주회(단원 수 1백여 명)
- 1967년 7월 22일 김선자 독창회
- 1967년 8월 25일 첼리스트 한영식 도미기념 독주회

음악회 등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실내 행사는 주로 극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목포에는 1950년대에 목포극장, 평화극장, 원진극장이 있었고, 1960년대에는 여기에 더해 남일극장, 시민극장, 중앙극장,

호남극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목포의 극장들은 1950년 6·25전쟁 때에도 아무 피해가 없이 시설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회 등의 공연장으로 매우 호평을 받는 공간이었다.

이처럼 광복 이후 1983년까지 목포 음악계의 흐름을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꼽을 수 있겠다.

첫째, 행사에 관한 기록이 없거나 많이 미흡하다. 방송과 TV 프로그램에서 과거 대중가요 일색이었던 내용들이 점차 클래식이라 불리는 서양음악을 다루는 시간이 길어지고, 연주회들도 많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관된 기록이나 프로그램(순서지) 등이 거의 없고, 있는 것들도 매우 미흡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둘째, 음악인들의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매우 짧았다. 예를 들어 1955년 제7회 목중 예술제 행사가 있었는데, 오직 제7회 예술제의 흔적만 발견할 수 있을 뿐 그 전후 행사의 흔적이 없다. 또 1968년 11월 4일 목포교육대학 학내예술제가 제3회만 있고 이 역시 그 앞에도 뒤에도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971년 6월 제2회 목포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지휘: 윤미웅, 반주: 정송희)도 제2회 이외의 공연은 찾을 길이 없다. 이것은 각 연주회의 책임자가 1년 또는 2년에 그치므로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이 바뀌고 심한 경우 명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 음악이 경시되었거나 빠졌다. 1963년 5월 목포시 주최, 목포예총 주관, 목포시민의 날 축제에서 가장행렬, 농악, 강강수월래, 촬영 대회 사진전, 패션쇼 등이 있었는데 음악 부분은 들어 있지 않다(당시 사회분위기 상 농악으로 대체되었으리라 추측한다.). 1967년 4월 목포시와 4·19동지회 주최 4·19 제7주년 기념 카니발 및 각종 대회에서도 음악은 빠져 있다. 그 외 역대 목포예술제 등 큰 행사에 음악의 참여도는 한 동안 미미하거나 빠졌던 경우가 많았다.

넷째, 각급 학교들의 음악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낮았다. 우리나라 서양음악 활성화의 대부분은 사실 학교 음악의 활성화와 학교 음악을 책임지고 있던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막대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젊고 패기에 찬 전문가들이 사회를 향한 음악의 열정과 학생들의 관심과 준비 시간의 확보를 통한 연주회 개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5년 목중 제7회 예술제, 1960년 목포사범학교 예능발표회, 1962년 목포정명여자중학교의 음악경연대회, 1963년 덕인예술제, 1964년 목포상고 주관 음악발표회 등 6건의 기록만이 남아 있다. 음악회 등 각종 음악 관련 행사 횟수가 120여 회이며, 학교를 통한 음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 분명한데 그 기록은 5%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유관 기관들과의 협조 체제가 미약하였다. 1951년~1971년 음악 행사를 기관별로 대강 분류해 보면 목포예술제 중의 음악행사 외에는 군부대, 교회 연합회, 교회, YWCA 주관 음악행사 등의 목포지역 음악행사와 함께 광주나 서울에서의 내목 공연, 방송국이나 개인 문하생 발표회, 오라트리

오를 비롯한 기타 몇몇 단체들의 발표회 및 연주회 등을 들 수 있는데, 목포예술제 행사 중의 음악이 긴 역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다른 음악 행사는 극히 짧게 명맥을 이어왔으며, 유관 기관이나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나 협조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목포 음악의 초창기에 음악의 태동과 의욕적인 활동의 양상을 느낄 수 있었으나 그 이후 답보 상태 내지는 오히려 뒷걸음질 하는 듯한 시기가 있었고, 1982년부터 다시 활동의 의지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1983년까지의 목포 음악을 정리한 한건홍은 음악이 강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고 빠름이 있으면 느림이 있으며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것처럼 음악 활동도 그러한 경향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⁰¹⁾

2. 목포의 음악 활동 II (1984~1997년)

1970년대까지의 목포 음악계는 주로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으며 전공분야도 다양하지 못하였다.

음악 행사로는 목포예총이 주최한 목포예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학생 음악 경연대회와 음악협회 회원 음악회, 그리고 오디오 애호가들의 모임에서 개최한 음악 감상회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된 다양한 발표회와 크고 작은 음악회들이 있었으나 전문적이고 다양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1979년 목포대학에 음악과가 신설되어 목포지역에서 음악 전문인 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83년 2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목포 음악계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목포 음악계의 큰 발전적 변화는 목포 시립 예술단체의 창단을 들 수 있다. 1982년 목포시립교향악단, 1985년 목포시립합창단, 1987년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창단되면서 목포 음악계는 양적 질적 발전이 시작되었다.

그 외에 어쩌면 가장 침체되었던 분야라 할 수 있는 창작계도 1993년 전남작곡가회(초대회장: 김정수)가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연주분야와 창작분야가 함께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01) 한건홍, 「음악」, 『목포시사』(인문편), 1987, 789쪽.

1) 목포시립교향악단

1982년에 창단된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전국 대도시와 도청 소재지 이외의 군소 도시에서 제일 먼저 탄생한 교향악단이다.

처음엔 목포실내악단이 모태가 되어 당시 범택균 시장과 오창환 목포대학장, 그리고 안봉현 목포대 음악과 교수에 의해 교향악단으로 발족하였으며 단원은 주로 목포대 음악과 학생과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었다. 초창기에는 시의 재정 지원이 없고 전원이 무보수였기 때문에 초대 지휘자인 안봉현 교수와 단원들의 열정과 일부 회비로 어렵게 운영하였다.

창단 이후 1995년까지 주요 공연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82년 11월 24일 창단
- 1983년 7월 11일 창단 연주회(지휘: 안봉현)
- 1987년 5월 15일 한·미 교수(미국 남미시시피대 교수)
교류 연주회(지휘: 맥크러리, 목포 광주 연주회)
- 1989년 6월 1일~4일 광주 오페라단 리고렛토 공연 협연(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 1991년 3월 18일 서울 1991 교향악 축제 참가(객원 지휘: 김경양, 서울 예술의전당)
- 1993년 3월 13일 서울 1993 교향악 축제 참가(지휘: 안봉현, 서울 예술의전당)
- 1994년 4월 8일~11일 광주 오페라단 제14회 정기 공연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공연 협연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 1994년 11월 12일 제2회 전남음악제 출연(객원 지휘: 김연주, 동광양 금호아트홀)
- 1995년 3월 24일 서울 1995 교향악축제 출연(객원 지휘: 변옥, 서울 예술의전당)
- 1995년 4월 6일~9일 광주 오페라단 제16회 정기공연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김중달의 유언-
꽃치니의 자니스키키를 변안한 작품 공연 협연(광주 문예회관대극장)
- 1995년 7월 13일 제32회 정기 연주회 겸 민선 초대시장(33대 권이담) 취임 경축 음악회(목포 KBS홀)

이외에도 35회의 정기 연주회, 오페라 협연, 초청 연주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등 총 60여 회의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초대 지휘자 안봉현이 이끌었다.

당시 목포시립교향악단의 활동은 목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성장하고 있었으나 이때까지도 예산의 뒷받침이 빈약하여 단원들의 보수는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단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유지되었다.

2) 목포시립합창단

해방 이후 목포에도 오라트리오편합창단, YWCA합창단 등과 각급 학교 합창단 등이 있었으나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합창단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시립합창단 창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1985년 11월 1일 목포시립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창단 당시 단원은 25명 내외의 목포대 출신으로 조직되었으며 연습은 목포대학교 음악관에서 주 2회씩 실시하였다. 무보수로 합창에 대한 열정과 목포 사랑의 정신으로 창단하여 연습하던 시립합창단은 초대 지휘자 심두석(목포대 음악과 교수)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 정석산(목포대 음악과 교수)이 2대 지휘자로 취임하였다.

창단 이후 1995년까지 주요 공연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85년 11월 11일 목포시립합창단 창단(초대 지휘자: 심두석)
- 1986년 6월 28일 창단 연주회(2대 지휘자: 정석산, 시민회관)
- 1988년 12월 22일 국민 화합 대음악제(서울시립, 대우, 부산시립, 목포시립)참가(서울세종문화회관)
- 1989년 11월 25일 제1회 광주 전남 시립합창제(광주시민회관)
- 1990년 10월 26일 영호남 한마음 축제 전남 대표로 출연(마산실내체육관)
- 1990년 10월 27일 서울코리안심포니 5,000명 대합창 연주회 참가(서울잠실실내체육관)
- 1991년 6월 11일 제1회 남도합창제 참가(경남문화예술회관)
- 1991년 10월 26일~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광주오페라단 오페라 아이다 공연 시 출연
(광주문예회관대극장)
- 1992년 4월 10일~12일 광주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춘향전 공연 출연(광주문예회관대극장)
- 1993년 11월 27일 제3회 남도합창제 참가(마산올림픽국민생활관)
- 1994년 2월 2일~6일 미국 하와이한인회 초청공연(미국 하와이 Mamiya theatre)
- 1994년 4월 8일~11일 광주오페라단 제 14회 정기 공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출연
(광주문예회관대극장)

이외에도 정기 연주회, 초청 연주회, 합창제 출연, 위문 공연 등 60여 회의 공연을 통해 목포 시민의 정서순화는 물론 합창음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교향악단과 함께 합창단 역시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성과를 높이고 있으나 열악한 예산으로 인한 상근 단원의 부족 등으로 앞으로의 발전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만 인식되어져 왔는데, 목포시는 1986년 6월 17일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초대 지휘자: 윤미웅)하고 1988년 10월 1일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그 이후 1995년까지 11회의 정기 연주회를 가진 초대 지휘자 윤미웅에 이어 제2대 주연희 지휘자가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 연주회와 제주한라예술제 초청 공연 외에 별 뚜렷한 활동이 없었다.

4) 창작(작곡) 분야의 활동

창작(작곡) 분야는 1967년과 1971년에 이용일(당시 목포교대 교수)가 작곡 발표회를 가진 후 20년 뒤인 1990년에 안봉현(목포대 교수) 작곡 발표회, 1992년 김정수(목포대 교수) 작곡 발표회가 있었다. 창작(작곡) 분야는 이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1993년에 목포대학 음악과 교수와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전남작곡가회(초대 회장: 김정수)를 조직하여 매년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남도의 한을 신명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회원은 안봉현, 김정수, 이정란, 심진섭, 오균영, 문승도, 김옥중, 정병갑, 오경래, 신동민, 장은화, 강연수, 김경아 등이 참여하였다.

5) 음악협회의 활동

가장 역사가 길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음악협회 목포지부의 활동은 매년 학생 음악 경연대회와 회원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지역 음악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회원들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목포 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목포대학 음악과 출신으로 구성된 목연회가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하여 젊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6) 중·고등학교 음악 교육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 교육으로 파행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의 음악 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몇몇 학교는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목포의 중고등학교 합창수준은 전남에서 가장 우수한 편이다. 그 예로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도민합창경연대회에서 목포여고(지휘: 김홍필)가 1991년, 1992년, 1994년에 초중고 분야에서 대상, 1993년, 1995년에 최우수상을 수상(지휘: 박정숙)하였다. 1995년에는 목포향도여중(지휘: 주연희)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목포고등학교는 남자 인문고등학교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상하였다.

관악합주(취주악)는 목포상고(1995년에 관현악단으로 편성. 지도: 양동철)와 목포여상고(지도: 최규향)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연습하여 매년 정기연주회와 함께, 전남관악제 및 전국체전 등에 출연하여 이 분야 역시 전남 지역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7) 개인의 음악 활동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게 활동하고 있으나 목포에서의 개인 활동은 저조한 편이다. 1980~1990년대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연주 활동 중 눈에 띄는 연주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85년·1988년 테너 김장성 독창회
- 1987년·1993년 테너 김성일 독창회
- 1988년·1991년 테너 김영문 독창회
- 1990년 이주영 피아노 독주회, 김문희 기타 독주회
- 1992년 박충영 독창회, 박진희 귀국 피아노독주회, 오성미 피아노 독주회
- 1993년 소프라노 고은주 귀국 독창회, 성명옥 피아노 독주회, 박행숙 피아노 독주회
- 1994년 여류 피아니스트 조영숙·박영운 고향 연주회, 소프라노 주연희 독창회, 김문희·김농학 기타와 바이올린 듀오 연주회, 이주영·김수송 피아노 듀오 발표회, 목포대 교수 피아노트리오(박행숙·김농학·배상철) 연주회
- 1995년 테너 윤양찬 부부음악회, 소프라노 박효강 독창회

8) 기타

(1) 외래단체 연주

- 1986년 한·미 교수 교류 음악회(한국 목포대학. 미국 남미시시피대학)
- 1993년 나폴리오케스트라 공연

· 1994년 러시아 국립 차이코프스키 소사이어티 오케스트라 공연

(2) 새암아트홀 개관(1995년, 대표: 이건설 목포대학 음악과 교수)

새암아트홀은 정식 음악 감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풍부한 자료를 소장한 음악 감상 및 연주홀이다. 새암아트홀의 탄생은 당시 지방에서 새로운 시도이며 오디오 팬들에게는 크나큰 즐거움이었다.

3. 목포의 음악 활동 Ⅲ(1998~2015년)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목포의 음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크게 나누어 언급하자면, 목포시립예술단체들의 활성화, 공연 시설들의 개관으로 공연 활동 활성화, 한국음악협회 목포지부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 민간 단체들의 태동과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활동 역사가 오래된 단체와 기관부터 기록하도록 하며, 분명한 근거 자료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국적, 국제적 명성의 수준 높은 공연이 많이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목포를 근거로 활동하는 음악 활동만을 정리한다.

1) 한국음악협회 목포지부의 활동

가장 역사가 길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음악협회 목포지부는 1955년 목포 음악가협회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62년 목포문화협회가 예총 목포지부로 개편되면서 목포음악가협회의 공식적인 이름도 한국음악협회 목포지부로 개명되었다.

매년 학생음악경연대회와 회원음악회를 개최하는데, 현재 50여 회의 학생음악경연대회, 제40여 회의 회원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초대회장 이동욱을 시작으로 서만중, 윤미웅, 한건홍, 최준기, 정송희, 김경돈, 이성덕, 김영문, 정영섭, 성명옥 등이 지부장을 역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지부장은 김장성이다. 무엇보다도 목포문화예술회관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 이후 수많은 연주회가 있었고, 그 중 목포의 음악가들도 수많은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나 그들이 활동해 온 기록들을 찾을 방법이 없는 가운데, 목포예총에서 발간한 소식지를 통하여 음악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회원들의 연도별 활동은 일부라도 확인할 수 있다.⁰²⁾ 이러한 음악회들을 통하여 목포의 음악도 눈에 띄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고, 전국과 국제 무대에서도 크게 활약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지금은 목포에

02) 지면 관계상 음악협회 회원들의 연도별 주요 활동 사항은 생략한다. 『목포예총』 기관지를 참고 바람.

서도 가장 목포적인 것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전국과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다는 표현을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목포시립교향악단

전남 유일의 시립교향악단으로 1983년 창단한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창단 당시 인적 재정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과 목포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기 연주회, 특별 연주회, 축제 연주, 인근 지역 초청 연주회, 오페라 공연 연주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1991, 1993, 1995, 2011, 2012년에는 우리나라 교향악의 최대 축제인 인정받고 있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는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하였고 조금씩 나아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으로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100여 회의 정기 연주회와 500여 회의 특별 연주회를 개최 하였다. 매년 4회의 정기 연주회와 30여 회에 달하는 갈라 콘서트, 가곡의 밤, 협주곡의 밤,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기획 연주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 문화적 삶을 나누고, 목포 시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시립교향악단과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자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피호영·데니스 김·이정선·세르게이 크라브첸코, 피아니스트 백건우·강충모·김다솔,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등 뛰어난 솔리스트들이 수차례 함께 했으며, 여러 차례 서울 초청 연주 무대를 통해 그 역량을 과시한 끝에 2011, 2012년 2년 연속 국내 최대 음악 축제인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에 초청되었다. 2012년 10월에는 일본 문화성에서 주최한 아시아 오케스트라 주간(Asia Orchestra Week)의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 동경 오페라시티 콘서트홀에서 일본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수준 높은 레퍼토리와 뛰어난 앙상블로 클래식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은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전남의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나 예향 목포를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한 국악 작품의 발굴과 오케스트라와의 접목을 통해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도 큰 몫을 감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교향악단이 되기 위해 전통 클래식뿐 아니라 대중성 있는 음악,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초대 지휘자 안봉현에 이어 2대 변옥, 3대 김연주, 4대 진윤일에 이어 현재 5대 김현수가 취임하여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열어가며 목포 시민들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 예향 목포의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1 목포시립교향악단

3) 목포시립합창단

1985년 창단한 목포시립합창단은 창단 연주회를 가진 이래 전라남도과 목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합창 발전의 선두 주자로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 합창단으로 인정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21세기 한국 합창 음악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 67회 정기 연주회와 200여 음악회에 출연하였다. 특히 26회 째를 거듭해온 남도시립합창제를 통해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도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8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 대화합 음악 축제에 호남 대표로 출연했으며 1990년 5,000명 대합창 연주회와 8차례에 걸쳐 오페라에 출연하였고, 1994년에는 하와이 한인회 초청연주회를 통해 교민 위문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림 2 목포시립합창단

목포시의 의지와 관심 속에 성장 발전해온 목포시립합창단은 30인의 전문 성악인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초대 지휘자 심두석, 2대 정석산, 3대 하수미에 이어 4대 정영재가 취임하여 전문합창단에 걸맞은 높은 예술성과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일을 위하여 풍족한 음악토양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86년 창단 이래 1988년 10월 1일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6회의 정기 연주와 1991년 10월 5일 태국 방콕 리틀 콰이어 (Bangkok Little Choir) 목포 초청 연주회 등 각종 초청 음악회, 일본 청소년 교류 연주회 그리고 이 지역의 학교와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함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림 3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연주와 함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위해 15회 '꺼져가는 생명을 우리들의 사랑으로'와 16회 '우리의 사랑으로 FOR THE DREAM' 공연을 통해 힘과 용기를 전달하였고, 32회 '사마리아프로젝트 세계를 품으며 함께·나눔 콘서트, 지구는 한가족' 공연을 통해 아프리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구호의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2008년에는 목포와 자매도시인 일본 벳부에서의 감동적인 연주로 벳부의 대표단이 목포를 답방하였고, 목포시립예술단이 계속하여 벳부 공연에 초청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초대 지휘자 윤미웅에 이어 2대 주연희, 3대 고은주에 이어 4대 김장성이 취임하여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음악 꿈나무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목포 시민의 자라날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성장 발전하여 예향 목포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 사절단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5) 목포대학교 음악과

1979년에 설립된 목포대 음악과는 1983년 2월부터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등을 전공한 졸업생들이 매년 30~45명 정도씩 배출되었는데 지금까지 대학 졸업생이 총 1천3백 명에 달하고, 교육대학원과 대학원 졸업생은 4백 명에 달한다. 대학과 대학원을 합하여 총 1천7백 명에 달하는 숫자이다.

졸업 후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들 중 1천 명 이상의 졸업생이 목포와 인근 지역에서 연주자 및 교육 전문가들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목포 음악 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음악과에서는 매년 신입생 음악회, 신춘 음악회, 정기 연주회, 피아노 음악회, 성악

연주회, 작곡 발표회, 관현악 정기 연주회, 합창 정기 연주회, 졸업 연주회, 제자 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회가 계속되고 있고 독창회, 독주회 등도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교수들의 연주회를 통하여서도 지역음악 발전에 자연스럽게 기여하고 있다.

6) 전남예술고등학교

1989년 설립된 전남예술고등학교에서는 음악과, 무용연기과, 미술과의 3개 전공별로 교육하고 있으며, 그 중 음악과는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지휘, 국악 성악, 국악 기악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음악에 있어 소질과 창조성을 개발하고 전문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음악인으로 육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목포예술고등학교로 설립되어 현재의 전남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고, 당초 학년별 1학급이었던 음악과는 1996년 1학급이 증설되어 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 25회에 걸쳐 3개과 3천5백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 음악과의 졸업생은 1천4백 명에 달한다.⁰³⁾

7) 목포문화예술회관·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

예향이라 불리던 목포에 1990년대가 되어서도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는 것은 음악 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이는 계속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드디어 1997년 목포문화예술회관이, 2004년에는 시민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하여 목포의 공연, 전시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전국 어느 시에도 목포처럼 공연장이 한 곳도 없는 곳은 없어, 명실상부한 예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연장 건립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1997년 개관한 문화예술회관은 수려한 경관과 함께 목포 공연, 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공연과 전시 시기에는 대관이 힘들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실이 있어 수준 높은 음악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2004년 개관한 시민문화체육센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 공연장이 함께 있고, 전문 연주단체는 물론, 공연 전문 단체가 아닌 학교와 단체들의 행사와 발표를 위한 대관도 가능하여 줄을 잇고 있다. 시민문화체육센터에는 시립교향악단과 무용단의 연습실이 있어 수준 높은 음악과 무용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03) 전남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jeonnamarts.hs.kr>).

8) 목포극동방송 전속 음악 단체의 활동

현재의 목포극동방송은 1994년 아세아방송호남본부로 개설되어 이듬해인 1995년 첫 전파를 송출하였고, 2000년 목포극동방송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세아방송·극동방송은 국내 방송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에도 일부 전파를 보내 현지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국내 지사가 설립되면 전속어린이합창단, 전속여성합창단 등을 조직하여 방송사의 목적에 부합한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합창단의 활동은 모두 자비량으로 하고 있다.

목포극동방송의 전속어린이합창단은 1997년 창단(초대 지휘자: 김장성)되어 매년 정기 연주회와 초청 연주회 등 많은 연주회를 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을 시작으로 3~4년 정도 주기로 전 미국 순회연주회를 갖고 있다. 전 미국 순회연주회는 보통 15일 내외의 일정으로 가지며 그 기간 동안 약 20~30회 정도의 연주회를 하며 방송에도 출연하는데 어린 단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다. 특히 2004년의 전 미국순회연주회에서는 세계로타리클럽 100주년 기념 대회에 초청되어 전 세계 180개국 25,000명이 함께 한 무대에서 연주하며 큰 호응을 받았고, 방송에도 출연하였다. 이와 함께 지휘자 김장성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KBS홀 등에서 전국에서 모인 극동방송어린이 연합합창단을 수차례 지휘하기도 하였다.

목포극동방송의 전속여성합창단은 2001년 창단(초대 지휘자: 주연희)되어 매년 정기 연주회와 초청 연주회 등 많은 연주회를 소화하고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아마추어 민간합창단이며 자비량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이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9) 예목회의 활동

예목회의 공식명칭은 '예향목포인연합회'로 목포 최초의 여성 화가인 김영자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김영자는 서양화, 동양화, 조각,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목포 토박이 예술인들로 예목회를 조직하여 매주 토요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토요마당을 열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 광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예목회 회원들이 모여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는 연주하고 무용가는 춤을 추며 시민들과 만났다. 눈비가 오는 날도 텐트를 치고 개최하였고 관객이 거의 없는 날도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독심을 보였다. 또 매년 1회는 예목회 토박이모듬전을 개최하여 전시, 공연 등을 선보였다. 1995년부터 10여 년 동안 계속된 예목회 활동은 김영자의 자비량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목포를 고향으로 살아가는 예술

인들이 격의 없이 시민들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예술의 대중화와 애향 정신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회자되고 있다.

10)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은 문화의 세기에 발맞추어 나눔과 소통, 상생의 문화 복지와 생활 문화 예술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수권을 돌려주고, 이를 위하여 우선 전문문화예술단체, 예술인들의 창작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09년 탄생되었다.

예향이라 불리는 목포는 서남해의 신안, 무안, 해남, 영암을 잇는 교통의 길목에 위치하여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다도해 풍광이 수려해 예전부터 문화 예술이 꽃피던 고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권의 이전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맞물려 문화 예술의 중심인 오거리가 쇠락을 거듭하면서 목포 문화예술 1번지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09년 초대 이사장 정종득 시장이 취임하며 탄생한 목포문화재단은 2대 김영현, 3대 이봉섭으로 이어지며, 인적 인프라를 확장하고 시민 생활 문화 예술 및 동호회 활동에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문화 감수성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예술의 접근이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목포 문화 예술의 융성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시립도서관 수탁운영, 어린이도서관 수탁운영, 소외청 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 시범운영,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수탁 관리, 문화의 날 행사 개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문학목포 발간, 가족오케스트라합창단 운영, 『예향』잡지 발간 등이 있으며 목포시의 기관 수탁운영, 문예진흥기금 운영과 함께 중앙 정부의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 사업들 중 음악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음악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함께 소외 계층의 청소년들도 음악을 배우고 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11) 기타 음악 단체와 목포 음악 활동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민간 음악 단체 중 목포남성합창단과 목포플루트오케스트라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목포남성합창단은 1996년 오덕표, 정영섭을 중심으로 창단되어 매년 정기 연주회와 함께 환우들

을 위한 음악회 등 봉사 활동과 다양한 음악회에 초청되어 연주회를 하고 있다. 창단당시 남성들의 합창단으로 신선한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총 1백여 명의 단원들로 조직되어 있고, 연주회에는 그 중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목포플루트오케스트라는 30여 명의 플루트를 연주하는 단원들이 김규향을 단장으로 2002년 창단되어 문현호의 지휘로 매년 정기 연주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연주회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를 매년 해오고 있으며,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사마리아프로젝트 세계를 품으며 함께·나눔 콘서트, 지구는 한가족'을 함께 하며 아프리카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모기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목포의 음악 활동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목포의 열악한 경제 여건과 학교 교육 활동 중 음악 교육의 침체, 그리고 음악의 저변은 넓어졌으나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줄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한 부분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모습이고, 예술은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모습을 의미를 부여하여 수준 높게 표현하려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열악한 경제 여건은 음악 활동의 많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도시들에서 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 세미나 등을 통하여 눈부신 문화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목포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목포시립예술단체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목포라는 소규모 도시에서 6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학교 교육에서의 음악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가 입시위주의 이른바 시험문제 잘 푸는 학력 중심의 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는 지방으로 올수록 더욱 심화되어 한동안 학교 교육 가운데 예술 교육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부처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예술의 기본이 되는 과정을 더욱 관심 있게 추진해야만 하고, 모든 학부모들이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를 표방하여 시작한 소외 계층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가족오케스트라, 가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음악의 저변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무척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단체 활동만으로는 전문성을 심화해 가면서 전문적인 예술가로서의 길을 가기는 힘들다. 재능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예술가의 길로 접어드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레슨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용이 매우 적게 드는 단체 활동에 익숙하게 되어

개인 레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지불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는데 이는 지역 경제의 열악함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상으로 음악 인구의 저변은 확대되었는데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인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들어 클래식 음악의 수준이 높아지고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연주회의 형태도 주로 공연장에서 행하여지던 것이 다양한 음악 분야를 다양한 무대 연출을 통하여 많은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컨대 열린음악회 등의 형태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클래식 음악과 관객의 간극을 좁히는 좋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의 발달이 클래식 음악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하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음악도 언제 어디서 검색하고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계적인 음악가의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에 비하여 공연 현장에서 직접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감동에는 전혀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오래 전부터 목포 사람들에게는 목포는 예향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며, 일부 설문과 통계에서는 인구 대비 예술가의 비중이 높은 도시이고, 삶에서 느끼는 행복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음악 분야의 활발한 활동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은 분명한 일이다.

김장성 | (사)한국예총 목포음악협회 지부장

제2절 목포 연극계의 흐름과 활동

1. 목포의 근대연극과 그 활동

1897년 개항하게 된 목포는 진도, 완도, 신안의 유배 문화와 영암, 무안, 해남, 영광 등의 토속 문화가 융합하여 유달산, 영산강, 삼학도 등 우리 지역의 정서를 머금은 자연 경관 속에서 예술의 뿌리가 뻗어 내리기 시작했다. 그 예술 속에서 우리 나뭇의 특성을 지닌 연극이 탄생되었으며 그것이 곧 목포 연극의 역사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연극은 다른 예술 장르도 그렇지만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상의 응축된 표현이기는 하나 다중을 직접 상대하는 동적 형태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록이나 섹채, 리듬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언어와 동작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반응 또한 즉각적이며 연극이야말로 타 예술 장르와 구별되는 살아있는 연행적(演行的) 예술인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유럽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근대 연극, 그 속의 목포 근대 연극 또한 외형만 형성되었을 뿐 하나의 세련된 예술 장르로서 확고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예능적 언저리만 맴돌곤 했다. 가령 전통극이 대체로 민속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문 것이라든가 근대극이 아마추어리즘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도 연극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빈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목포 근대 연극의 역사 또한 역사에 기록될만한 특이한 활동이 일천할 뿐 아니라 정당한 사실 기록이나 문헌이 없어 일부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근대 목포 연극에 관한 간단한 내용 소개나 주변 이야기를 서술할 뿐이다. 즉 목포 근대 연극의 역사에 대한 소상한 천착이 없으며 서술 또한 매우 도식적이며 기록만을 형식적으로 나열한 것이어서 연극의 예술적 성취도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목포 연극과 초성 김우진(1897~1926)

1) 김우진의 문학 활동과 목포 연극

김우진은 식민지 시대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와 민족을 위한 신극 운동을 주창하며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실험성 짙은 희곡을 목포를 배경으로 창작했던 1920년대의 대표적 작가이다. 우리의 희곡 문학을 서구 문학 수준으로 수용, 접근하려 노력해 온 우리나라 국문학의 개척자로서 목포 연극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김우진은 1897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김성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대지주 아버지를 따라서 1908년 목포 북교동으로 이사했다.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1913년

소설 「공상문학」을 탈고했으며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1917년 농업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자신의 문학이나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한시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했다.

김우진은 공식적인 문필 활동의 첫 작업으로 연극 비평문인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학지광』 1921.06.)를 발표한다. 그가 주장한 근대극은 향유하는 예술적 차원을 넘어서 동시대와 민족의 구제를 목표로 하였으며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이 시기 3·1운동을 거치면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근대극 운동’을 주창했다. 김우진은 1920년 ‘극예술협회’를 창립하고 1921년 ‘동우회순회연극단(同志會巡廻演劇團)’을 조직하여 자신이 무대 감독으로 임세회를 단장으로 하여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였다. 바로 이 순회공연으로 조선에서는 이른바 소인극 운동이 활성화 되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은 근대적 자아의식을 각성하게 되고 사회와 당시대의 문제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김우진이 극예술을 택하게 된 연유에는 탁월한 어휘 실력으로 일본 예술은 물론 다양한 서구 예술 이론과 작품을 섭렵한 데 있다는 점이다.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외국의 유명 출판사(영국 맥밀린사)에서 원서가 직접 배달되는 곳은 김우진의 자택이 유일했을 정도로 그의 어학 실력은 탁월하였다. 사실 김우진은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를 발표하기 전에도 연극과 문학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⁰¹⁾ 그런 결과로 김우진은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를 시작으로 “Man and Superman-A critical study of is philosoply”(1924), 「창작(創作)을 권(勸)함네다」, (Societe Mai 1925. 09.), 「구미현대극작가론」(『현대일보』, 1926. 01.~05.), 「자유극장 이야기」(『개벽』 1926. 05.), 「우리 신극 운동의 첫길」(『조선일보』 1926. 07. 25.~08. 02.), 「황제존스에 대하여」(『시대일보』 1926. 06. 20.), 「축지 소극장에서 「인조인간」을 보고」(『개벽』, 1926. 08.) 등과 같은 연극 비평문을 썼다.

이처럼 김우진은 연극 비평문을 통해서도 근대극 운동 혹은 신극 운동을 주창하였다. 특히 표현주의극을 자아의식의 표출로 보고, 개인적 세계관을 뛰어넘어 민족적인 의식까지 발현하려고 했다는 점도 김우진이 극예술을 택한 이유 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 있다.

한편으로 김우진은 동시대 일본 극예술의 흐름에 대해서도 크게 자각하여 동경 유학시절부터 무대 전문 극장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김우진이 근대극 운동 혹은 신극 운동의 일환으로 전문 소극장을 운영하려 했던 것은 가계의 막대한 자금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대의 문화 활동이 극장이나 회관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는 점도 있다. 그만큼 김우진은 무대를 통해서 대중들과 직접 호흡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김우진의 생애 기록과 시를 교직하여 추출해 낸,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사회 개혁과 민족 구제 의식을 예술적으로 표면화시킨 장르가 극예술이라 할 수 있다.

01) 구체적인 내용은 김성진, 『수산 김우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참고.

2) 김우진이 남긴 5편의 희곡

(1) 민족 의식의 표출 「정오(正午)」

김우진은 소설, 한시, 시, 연극 공연, 번역, 연극 비평, 문예 비평, 수상, 희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예술 활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희곡은 1924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단막희곡인 ‘정오’는 바람 한 점 없는 뜨거운 여름날 어느 도시의 공원을 배경으로 한다. 극적 구성이나 창작 기법에 있어서 단순한 작품으로 그의 근대극 운동의 창작 테마인 참된 계급의식을 거칠게나마 구현하려 했던 점과 배일(排日)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무대가 이전 작품들은 ‘가정’이었으나 이 작품은 ‘사회의 한복판’이 무대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2) 남성 중심 사회의 고발 「이영녀(李永女)」

1925년 6월 창작된 희곡 「이영녀」는 3막으로 구성되며 제1막 1924년 하(夏), 야(夜)와 제2막 1925년 초하(初夏), 제3막 1925년 동(冬), 조조(早朝) 속의 목포를 무대로 설정하고 있으며 양동(陽洞)은 1920년대 당시 빈궁한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으로 무대 지시문에 당시의 양동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희곡 「이영녀」는 어둡고 빈궁한 삶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다 죽어간 여주인공 이영녀에 대한 진지한 보고서이자 남성 본위 중심문화의 폐해를 정면으로 공박한 통찰 깊은 극작품이다. 인간 내면의 자각이나 영혼을 파악하기보다는 당시 부조리하고 극악한 사회 현실에서 어느 한 주체자의 대응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으나 희곡의 결말 부분에서 이영녀의 죽음 이후 장황한 대사의 처리 기법 등은 희곡 「이영녀」를 극적으로 느슨하게 만든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신세계 동경의 자아드라마 「두테기 시인의 환멸」과 「난파」

1925년 12월에 탈고한 김우진의 세 번째 희곡 「두테기 시인의 환멸」과 1926년 5월에 완성한 희곡 「난파(難破)」는 작품 속 주인공인 시인을 추적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김우진 자신이 표현주의극을 고찰하면서 ‘원시적 자아’의 발견이나 극적 자아의 주관적 시선을 통해 타자를 인식하는 수법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테기 시인의 환멸」에서는 주인공인 시인은 순수한 이상 세계를 추구하며 부자연스런 일상 생활에 환멸을 느끼는 시인의 내면 의식과 제반 현실의 억압적 요소와 상충한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면 김우진은 현실적인 유혹을 욕망했던 시인 자신과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비판과 환멸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인습과 자아 세계의 괴리 때문에 시인은 결국 일상의 폐쇄된 현실 상황에

서 첨예한 갈등을 토로한다.

「난파」는 표현주의극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3막으로 된 김우진의 네 번째 희곡으로 20명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본격적으로 무대를 소개하기도 전에 전주 형식으로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의 아리아 「카르노메」가 울려 퍼지는데 이 「카르노메」는 포괄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인공인 시인이 인간 존재의 본원성에 귀의하려는 욕망의 틈바구니에서 좌절하고 투쟁하는 갈등의 시간에 이 노래가 흐른다. 음악을 첨가한 기법 활용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시성을 의미하며 현실과 극중 시인을 난파시키기 위해 「카르노메」의 삽입을 의도했음을 볼 수 있다. 「난파」는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으며 그 논지들 중에는 「난파」를 ‘죽음’ 혹은 ‘자아 파멸’과 연관 짓고 있기도 하다. 김우진의 시에 토로된 죽음의 세계는 생의 핵심과 삶의 완미를 구하려는 의지의 세계라 분석한 바 있다. 윤심덕과 친구들의 언급과 여러 기록에서 죽음을 예견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연극 비평문에 표현했듯이 우리민족의 참담한 삶을 극예술로 구제하고자 하는 김우진의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 해도 좋은 것이다. 결국 자아 발견과 예술로 상징되는 신세계에 대한 욕망이 가정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욱 더 강해진다는 것이 「난파」의 주제인 셈이다. 이는 현실에 부침(浮沈)하면서도 극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욕망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전망해내려는 김우진의 의지로 집약된다.

(4) 시대와 민족을 위한 신극 「산돼지」

김우진의 다섯 번째 희곡 「산돼지」는 1926년 6월 말부터 쓰기 시작하여 약 20일 만인 7월 17일에 탈고한 작품으로 개인적 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의지세계가 지향되고 있다. 동학(東學)을 극중에 삽입하여 동학 정신이 사라지는 동시대에 숙명적인 개인의 굴레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포함한 조선 지식 청년들의 사회개혁 의지를 주창하고 있다. 또한 좀더 독자 혹은 관객에게 다가서려 모색한 기법상의 변화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들의 각성을 편중되게 그리고 있는 점은 오히려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렇듯 김우진은 일제강점기 목포 연극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 후 목포에서 연극 활동은 간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34년 목포 남교동에 ‘청년회관’이 준공되자 그 당시 청년운동을 펴 나온 선구자들에 의하여 일 년에 한두 번씩 연극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청년회관은 그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현대식 석조 건물로 기독교회에서 운영했고 그 맞은편에 ‘희성 유치원’이 있었는데 나는 1931년에 그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청년회관에서 연극을 어렵잖이나마 기억할 수 있다.⁰²⁾

02) 차범석, 「내가 살다가 온 목포 연극」,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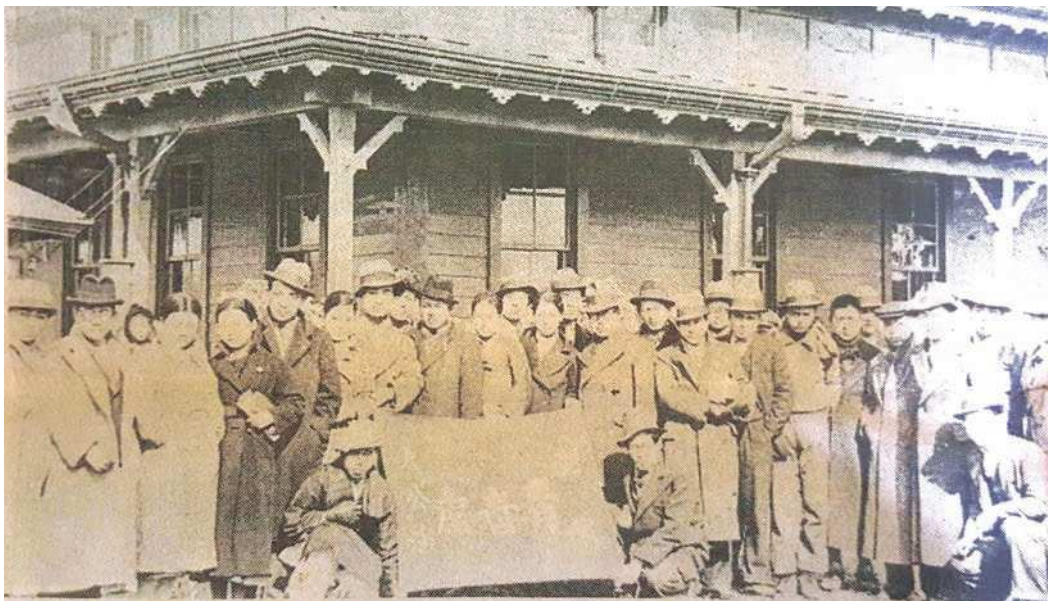


그림 1 김우진이 죽은뒤 목포에서 그를 기념하는 공연을 가진 극단 청춘좌의 기념사진 (『광주일보』 1991. 06. 06. 「남도문학 80년 발굴 기행 - 김우진 -」에서 발췌)

이후 목포에서도 남교소극장(현재 청년회관으로 다시 명칭 바꿈)자리가 당시 청년회관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연극을 하면서 민족 의식을 일깨우는 공연을 수차례 가졌다. 당시 호남고무공장 사원 중심으로 또 영흥학교 출신들이 민중의 독립 의식화 교육을 위해서 산발적으로 연극 공연을 하였다. 당시의 기록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당시 호남고무공장 근처에 살았던 목포 출신 연극인 최명수가 증언해 주었고, 당시 청년회관에서 주축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당시 정명학교를 졸업한 남궁순, 양금순, 서금복, 박응신, 서기선 등이 연극 「파도의 보물」로 막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해방을 전후한 목포 연극과 그 활동

1) 목포 연극의 씨앗 「눈 내리는 밤」

8·15 광복 후 목포 예술인의 단체로 '예술문화동맹'이 있었다. 그 활동 또한 눈에 띄게 활발했으며 문학부에서는 『예술문화』 4집을 발간했고 연극부에서는 아일랜드 극작가 존 밀링턴 싱 원작, 장병준 번역의 「눈 내리는 밤」이 평화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는 1945년 일본에서 연극과 문학을 공부해 온

유학생 출신인 이화삼, 박경창, 홍순태, 백두성 등이 주축이 되었다.

같은 제목의 다른 공연도 있었다.

자발적이고 예술적인 각성에 의하여 연극이 올려진 것은 1945년 12월 하순, 평화극장에서 공연된 「눈 내리는 밤」을 첫 손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이 연극은 조국의 해방과 함께 중앙에서 각종 예술동맹이 조직되자 그 여파로 각 지방에서도 수많은 예술단체가 탄생하였으니 목포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목포의 연극계는 특기될만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 당시 목포에는 일본에서 연극 및 문학을 공부해 온 유학생 출신이 상당히 있었다. 이화삼, 박경창, 장병준, 백두성 등이다. 그것도 백두성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본대학 예술과’ 출신이니 그들의 의기투합은 자연스러웠으리라. 그들이 주동이 되어 목포에다 연극예술의 씨앗을 뿌린 작품이 곧 ‘눈 내리는 밤’이다. 이 작품은 아일랜드 극작가 존 밀링턴 씽의 「그늘진 계곡」을 변안한 작품으로 이화삼이 연출했다. 여주인공인 노라 역을 물색 중에 당시 목포에서는 단 하나의 다방 ‘백궁’의 마담을 설득시켜서 무대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 특히 그 ‘노라’역을 맡은 여인이 보통 여인의 체격보다는 커 보이며 유난히 흰 살결이 어딘지 이국정서를 자아내게 한 인상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내 뇌리에 남아있다.⁰³⁾

나는 그 당시 모교인 북교국민학교에 재직 중이었으며 공교롭게도 나도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예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품은 내가 쓰고 연출한 것으로 제목이 똑같은 「눈 내리는 밤」이라는 노래극이었다. 혁명운동을 해 나온 투사가 눈 내리는 밤 경찰의 눈을 피하여 고향집에 잠시 들러 가족과 만난 다음 다시 떠나간다는 내용이었다. 출연은 윤창현, 장성희로 장성희의 아버지가 앞서 소개한 장병준의 딸이라는 사실을 훨씬 후에야 가서 알게 된 일이다.⁰⁴⁾

이렇듯 연극에 뜻을 둔 차범석은 1946년 목포를 떠나기 전까지 북교초등학교에서 연극 활동을 해 온 것을 엿볼 수 있다.

2) 유달학생회와 「신촌」

1948년 1월 18일 차범석이 참여한 ‘유달학생회’는 이른바 목포 출신의 서울 유학생의 모임으로

03) 차범석, 「내가 살다가 온 목포 연극」,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91.

04) 같은 글.

전재민 동포 구호의 슬로건을 내걸고 연극을 공연하게 되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박경창 작, 차범석 연출의 「신촌」이었다.

이 작품은 목포 유달산을 배경으로 살아 온 남매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고향을 등지고 하와이로 이민 갔던 여자가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이 연극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고향을 등진 삶을 살아온 여인, 이와 대조적으로 그녀의 남동생만은 척박함속에서도 고향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러나 고향에 뿌리내리기를 주저하는 누나, 이를 두고 남동생은 누이를 향해 눈물로 호소한다. 그의 호소와 질타성 언어는 누이의 가슴을 뜨겁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누나가 떠난다면 누가 고향을 지켜야 한단 말인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방공간이 펼쳐지지 않았는가? 동생은 줄기차게 누이를 설득한다. 누나는 지난시절 주변만을 탓해왔던 자신의 무기력, 자신의 못남을 되돌아보고 뜨거운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고향 유달산을 마주하며 두 남매가 두 손을 굳게 맞잡는 새로운 희망과 역사의 창출, 그 주인공이 될 것을 다짐하며!⁰⁵⁾



그림 2 「신촌」 공연 후 기념사진(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연출·주연을 맡은 차범석)

05) 김길수, 『남도의 희곡미학』, 누리기획, 1998.

박경창은 일본대학 예술과 출신으로 연극광이었고 먼 훗날 서울에서 ‘서울극회’를 창단하여 소극장 운동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는 대학생들의 모임에서 연극을 한다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작품을 무대화한다는데 도취되었을 뿐 정작 연극에 필요한 기획력은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막상 연습에 들어가니 주역을 맡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차범석이 연출 겸 배우로 직접 출연하게 된다. 차범석으로서는 상당히 공을 들인 작품으로 당시 여주인공을 맡은 김승해는 소설가 박화성의 딸로 남자 주인공인 차범석과 호흡이 잘 맞았고 대단한 파장과 감동을 던져준 바 있다.

…… 생각 끝에 결국 내가 주역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신파극단에서 경험을 쌓은 기성연극인 「김막」을 찬조출연하게 하였다. 김승해(이화대), 김생길(이화대), 김숙자(이화대), 김덕자(이화대), 강대순(숙대), 이상률(성균관대), 정해선(고려대), 김승한(서울대), 김철한(서울대), 강대익(연세대) 등 이른바 그 지방의 엘리트들이 대거 참여했던 이 연극은 무대도 참신했었고 흥행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전재민 동포구호라는 미끼로 우리들 순진한 학생들의 양심을 짓밟은 악덕 흥행사의 농간으로 잔치의 뒤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마터면 법정사태로까지 비화할 뻔 했다가 무마되었다.⁰⁶⁾

이 공연을 계기로 당시 목포에서 공연된 작품으로는 「학병과 누이」(북향인 작), 「집을 떠나는 사람들」(박경창 작, 차범석 연출), 「깨어진 항아리」(하인리히 폰 크라이스트 작, 차범석 각색·연출)등이 있다. 이후 목포 연극은 일제하에서 팽배했던 신파극의 통속성을 극복하면서 서서히 당대의 문화 예술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당시 흥행했던 신파성 연극이 아예 자취를 감춘 것은 결코 아니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수많은 악극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목포 등지에서 생겨난 대표적 악극단을 보면 황용운, 박대자가 대표로 되어있던 ‘백마악극단’이 있었고 박행, 김민규가 이끌었던 ‘은하악극단’이 활동하였는데 은하악극단은 「안중근 사기」를 공연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예명이 ‘방동’이란 이름을 가진 김송규는 ‘장안무대’라는 연예 단체를 만들어 뒷날 조선 영화사에서 「홍길동전」을 촬영한 장필동과 함께 활동하였다. 많은 신파 악극단과 스쳐 지나간 배우 중에서 이화삼을 빼놓을 수 없다. 목포영흥학교를 졸업하고 연극좌에서 활동한 이화삼은 「춘향전」에서 변학도 역을 맡아 열연했으며 「목격자」에서 가스 역을 맡아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 광주 연극의 뿌리역할을 하게 되었던 박동화도 빼놓을 수 없다. 박동화는 「켈켈란드 해적」, 「흑경정」(함세덕 작)에서 열연하여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독

06) 차범석, 「내가 살다가 온 목포 연극」,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91.

차지하였다. 당시 악극단은 교통 상 문제점 때문에 악극에 필요한 무대 장치 등 수많은 장비들을 우마차에 싣고 수백 리 길을 걸어 다니며 전국을 순회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그들의 고통은 당시 목포 시민들의 고단한 삶에 청량제 역할을 했으며 기쁨을 올렸다.

3) 차범석 「산불」의 모태 「별은 밤마다」

1950년 6·25의 전화(戰火)가 우리의 강산을 휩쓸고 지나가고, 같은 해 9월 수복과 1·4후퇴가 있 기까지 목포 연극은 잠시 주춤한 듯 했으나 이듬해인 1951년 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부가 결성되 면서 3·1절 기념 종합 예술 행사를 마련한다. 이때 극작가 차범석의 불후의 명작 「산불」의 효시가 된 차범석의 처녀작 「별은 밤마다」가 차범석 연출로 평화극장에 막을 올린다.

각 분야의 예술을 총망라한 종합예술제가 기획되어 3·1절 기념행사를 마련하였으니 1951년 3월 1 일에 공연한 「별은 밤마다」(2막)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작품은 훗날 발표한 「산불」의 데생에 해당하 는 작품이며 실질적으로는 나의 처녀작이기도 했다. 그리고 작, 연출 그리고 주연까지 맡아야 했던 나의 초인적 에너지는 주변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작품에 열아홉 살 흥안 소년 김길호가 호연을 보여 대성할 재목감으로 꼽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순회 직업극단 출신인 장광석, 황명, 김 경옥까지 합세하였고 중견화가로 알려진 취당 장덕 선생이 장치를 맡았던 것도 이 지방 연극에 진 일보를 보였다.⁰⁷⁾

2막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공산주의 이념에 현혹되어 빨치산에 합류했다가 그들의 비인간적 만행과 파렴치한 행각에 염증을 느낀 어느 지식인의 회의와 고뇌 그리고 이로 인한 한 가정의 비극과 애환을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다. 차범석은 이 작품을 스스로 ‘비공식 데뷔작’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이 작품은 위기 의식 창출 과정이나 갈등 유발의 기법 면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무대 구조물의 조형성 및 색깔문제를 놓고 당시 나이 어린 차범석과 원로 동양화가 장덕과의 의견 충돌과 토론 작업을 상당한 의미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장덕은 무대 뒷그림을 산수화풍의 열은 색깔로 구성할 것을 고집하였다. 이에 반해 공연 설계자 차범석은 조명 빛과의 만남을 예상하여

07) 차범석, 앞의 글.

무대 구조물의 이미지와 색깔을 주문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의견 충돌은 차범석에게 공연성을 위한 생산적 사유와 고뇌를 야기 시킨 바 있다. 연극성 창출을 위한 시각적 이미지의 재구축, 이를 향한 의견충돌과정을 통해 차범석만의 창조적인 사유작업이 이루어진다. 무대구조물의 위치와 방향 조명 빛과의 만남을 통한 무대 색조의 2차적 의미 도출, 이에 대한 정밀한 주문과 방향 제시는 차범석 작품 공연의 강점이자 매력으로 손꼽히고 있다.⁰⁸⁾



그림 3 1960년 1월 목포극협 창립공연 「정의를 사람들」 공연을 마치고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길호,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차범석)

같은 해인 1951년 목포 해군 경비부 정훈부 주최로 「베토벤의 월광곡」에 최명수, 이호섭, 이화수, 신숙 등이 출연하여 평화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1952년 크리스마스 때 목포 교회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공연하여 서구 근대극의 지방 유입 가능성을 예고함으로써 목포 연극은 날개를 단 듯 웅비하기 시작했다.

08) 김길수, 『남도의 희곡미학』, 누리기획, 1998.

1952년 크리스마스 때 셰익스피어의 명작 「베니스의 상인」 중 법정장면을 공연하였다. 물론 학생층 관객을 의식하기도 했지만 이 고장에서 최초의 셰익스피어극을 소개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더 컸다.⁰⁹⁾

당시 배역을 맡았던 사람은 샤일록役に 김길호, 안토니어役に 최명수, 포오샤役に 당시 탁구계에 이름을 날렸던 황모였다. 최명수는 당시 정명여고 교사이면서 유독 연극을 좋아했으며 이 공연이 계기가 되어 얼마 후 교감직을 마다하고 영화배우가 되어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별은 밤마다」와 「베니스의 상인」, 「베토벤의 월광곡」 등의 연극 공연은 당시 여기저기 난립해 있던 신파 악극단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차츰 신파 악극단이 정리되어 사라지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목포에서 차범석의 연극 활동은 그가 목포중학교 재직 시절인 1951년~1956년 목포중학교 예술제의 연극공연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는 학생극을 올리는 과정에서 적당한 텍스트가 없다는 장벽에 부딪혔다. 좀더 정확하고 정통적인 시각에서 학생 연극의 텍스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끝에 차범석은 「현대 1막 극선(現代一幕劇選)」을 번역, 상재하게 된다. 버나드쇼, 유진오닌, 존 밀링턴 씽의 단막극이 그의 손에 의해 직접 번역·소개되었던 것이다. 번역 작업 이외에 그는 희곡 습작에 몰두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때 나온 습작 희곡으로 「닭」, 「제4의 벽」, 「풍랑」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사회 연극 운동은 우선 학생극 운동부터 부활시켜야 한다는 신념아래 학교 당국의 협조를 얻어 네 편의 작품을 무대화 하였는데 「백의」(차범석 작·연출), 「저주」(차범석 작·연출), 「달뜨는 무렵」(그레고리 원작, 차범석 변안·연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스토우부인 작, 차범석 각색·연출) 등이 그것이다. 차범석은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한 영문학도로서 섬세하고 선명한 필력에다 내용을 알기 쉽게 번역하여, 당시 저명한 외국 작품 하나 접할 수 없었던 학생들과 일반 서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렇듯 목포중학교 예술제는 차범석이 목포에서 연극 인생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이며 도약의 발판으로 목포 연극을 활성화시키는 핫볼 구실을 하였다. 그 무대를 통하여 연극계, 영화계, 방송계 등으로 진출한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연극이 흔치 않았던 당시로서는 일 년에 한 번씩 올려지는 연극 무대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호평을 받았고 이때문에 목포중학교 예술제는 후일 목포학생연극경연대회를 열게 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목포중학교 제7회 예술제 때에는 스토우 부인의 원작 「검둥이의 설움」을 각색·연출하며 공연하여 큰 호응을 얻었는데 당시 『목포신문』 10월 30일자에 전승묵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09) 차범석, 「내가 살다가 온 목포 연극」,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91.

차범석의 각색과 연출은 차범석의 험쵸한 얼굴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가 고생했나를 알 수 있다. 분장, 장치 등이 전체적으로 봐서 촌놈들의 소인극이 아닌 세련된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막의 이별장면이 관객을 지루하게 했다. 2막 이후의 스토리를 연결하지 못한 것 같다. ‘툼을 구해준 소년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꼬집었고 소년 역을 맡은 김영일 군이 너무 예쁘고 어울려서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 그리고 이런 연극공연은 몇몇 운동선수들의 원정경기보다 몇 갑절 교육적인 보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차범석은 목포 연극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데 몰두하였고 이 연극 「검둥이의 설움」은 그 해 학생의 날 기념 전국 연극 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상을 받아 우리 지역 학생극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무렵 차범석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가작으로 「밀주」가 입선하여 당당히 희곡작가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드디어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귀향」으로 당선하여 연극인으로서 그의 활동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1956년 1월 5일 목포 미네루바에서 당선 축하의 밤을 끝으로 당시 목포의 대지주 차남진의 아들로 태어나 목포에서 젊은 꿈을 키웠던 그는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기에 이른다. 상경 즉시 그는 옛 학교 동문들과 함께 ‘제작극회’를 만들어 중앙 무대에서 연극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극작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 희곡 작가로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목포 연극은 차범석이 서울로 상경한 후에도 끊임없이 활동하였으며 당시 목포중학교 미술교사인 강동문이 차범석의 뒤를 이어 학생극을 맡고나서 그 명맥을 유지·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1958년 차범석 원작 「나는 살아야한다」를 평화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차범석이 목포를 떠난 후 문인 조희관의 추모의 밤을 지내면서 목포 예술은 다시금 구심점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목포문화협회의 탄생이며 그 산하에 가칭 ‘목포극회’가 만들어지고 초대 회장에 홍순태를 선출하게 된다. 홍순태는 우리 지역 연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958년 8월 KN방송극회를 만들어 그 해 11월 29일 성우들을 뽑고 1959년 1월 23일 방송국 공모전을 통해 심사발표를 하게 된다. 그때 13명이 응모하여 다섯 편의 작품이 가작에 당선하게 된다. 윤광섭의 「내일을 위하여」, 박유봉의 「선산」, 정배의 「주작이라」, 이은조의 「꿈의 탐색대」, 김순기의 「젊은 태양의 여인」 등이었다. 당시 KN방송극회는 전국적으로 지방방송에서는 제일 먼저 탄생되었으며 제일 장수한 프로로 계속되었다. 방송 기간은 1959~1967년이었으며 당시 라디오조차 흔치 않았지만 『목포일보』에는 주간드라마 내용과 출연진을 소개하는 등 지면을 할애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목포의 연극인들이 주로 출연하게 되어 목포 연극인들은 주 1회 정도 화술을 익히고 연구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시 시민들도 월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계속되는 전파를 기다리는 열을 올려주었다. 이러한 일들은 얼마 후에 김성인이 중앙방송 현상모집에 「사공부자(沙工父子)」로 당선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목포를 주제로 한 전라도 사투리를 넣어 향토색 짙은 작품을 만들어 당당히 당선한 것이다.

4) 1960~1970년대 목포 연극과 그 활동

(1) 목포극협의 탄생과 그 활동

1959년 6월 목포 KBS 공개홀에서 가칭 ‘목포 극회’를 정식으로 극단 ‘극협(목포극협)’으로 명명하고 창립하면서 제2대 회장에 김길호가 당선되면서 김길호를 중심으로 재출발한 목포 연극은 연극 활성화 일환으로 중앙의 우수 극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시도하였으니 그 공연이 차범석이 서울로 상경하여 만든 제작극회의 「공상도시」(차범석 작, 김경옥 연출)였다.

서울에서 ‘제작극회’를 초청, 그해 9월 2일 목포극장에서 차범석 작, 김경옥 연출의 「공상도시」를 공연하였는데 700석 극장에서 단 1일 2회 공연에 3천 명에 가까운 관객이 쇄도한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물론 여기에는 오랫동안 순수정통 연극에 굶주려 왔던 시민들의 본능적인 호응도 주요했겠지만 거기에 이 고장 출신들인 차범석의 작품에다 특히 여학교 훈장으로 있다가 영화배우로 변신해서 대단한 화제를 모았던 최명수 선생, 한전 목포지점에 근무하다 역시 영화배우가 된 미모의 장신영이 연기자로 합세한 것 등이 주요인이 아니었나 싶다. 아무튼 제작극회의 초청공연은 기획면에서 성공했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후일 목포 연극 운동에 큰 영향과 활력소의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보다 귀중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¹⁰⁾

그 공연은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되돌아가는 수가 부지기수였으며 영화에 관객을 뺏겨버린 당시 목포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초청 공연으로 힘을 얻은 목포극협은 곧바로 ‘창립공연’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지역 연극은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예술 정신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김길호의 뜻에 따라 우선 기본부터 다져야 했다. 즉 서구의 근대 단막물부터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서서히 작품 세계를 넓혀 갔다. 창립공연 레퍼토리 선정에는 모든 회원이 모여 진지한 회의 끝에 까뮈의 「정의의 사람들」 중에서 한 막을 골라 공연하기로 결정했다.

10) 김길호, 「내가 살다가 온 목포 연극」,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91.

‘까뭉 서거 후’라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됐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무튼 이 창립공연은 두 달여의 고된 연습기간을 거쳐 다음해인 1960년 1월 19일 유원회관에서 박현 연출로 대망의 막을 올려 이 고장 지식인들과 많은 관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¹¹⁾

1960년 1월 19일 박현 연출로 목포 유원회관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목포 지방의 지식인들과 관객들로 대성황을 이루어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또한 이 공연에 김길호와 청계초등학교 교사인 ‘승복순’이 참가하여 배우 예술의 묘미를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2) 목포예술제와 목포학생연극 콩쿠르

한편 목포극협은 정기 공연과 병행해서 큰 뜻을 두고 계속해 오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목포 연극의 역사를 계승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과 연극 인구의 확산의 일환으로 학생 연극 경연 대회를 창설하였다. 1959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중등부는 「역마을 소년」(주평 작), 고등부는 「운명의 굴레」(차범석 작)를 유달초등학교 강당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1966년 10월 제7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7년 남도에 닥친 극심한 한해(寒害)로 참가 학교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거기에 따른 복합적인 사회분위기를 감안해서 일시 대회를 중단하고 학생방송극경연대회로 대신하게 되었다.

목포예술제 행사 일환으로 매년 열렸던 학생 연극 경연 대회는 당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에게 연극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학생 연극 경연 대회를 통해 배출된 목포 출신의 대표적 예술인으로는 가수 남진, 탤런트 박상조·민욱·박건·박경순·서영애·강미·허현호·김중, 코미디언 이기철, 연극인 김명규·이재운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1964년 목포제일중학교가 전국연극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에서 자체 예술제를 개최하고 연극반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였다. 당시 매년 목포예술제의 학생연극경연대회에 10개교가 자발적으로 참가했던 것만 봐도 그 때 학생 연극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열기는 각 학교의 연극반 학생 중심으로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여 목포학생연합 연극 단체를 만들고 가수 남진의 집에서 연습을 해서 목포여중 강당에서 차범석의 「별은 밤마다」를 공연하기도 하였다.

1966년에는 ‘학생연합극회’가 탄생되어 ‘눈동자극회’라 명명하고 그 해 8월 스토히부인 원작, 차범석 각색 「내고향으로 날 보내주」를 정승태 연출로 신희예식장에서 창립공연을 하였는데 시민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여세를 몰아 12월 17일 존 밀링턴 씬의 원작 「계곡의 그늘」을 연습하고

11) 김길호, 「내가 살다가 온 목포 연극」,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91.



그림 4 1964년 김길호 연출 「탄갱부」(유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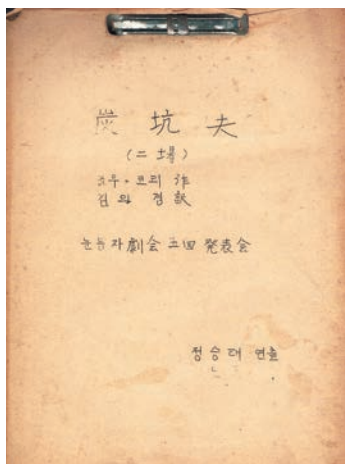


그림 5 1964년 노동자극회 「탄갱부」
당시 대본(정승태 연출)

공연계획을 세웠으나 학생 씨클활동을 용납하지 않는 당시 사회 분위기와 학교의 방침으로 공연이 무산되어 버리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까지 목포극협은 T. C. 말레이의 「장남의 권리」(1961),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1962), 조우코리의 「탄갱부」(1964), 김길호의 「소매치기」(1965), 안톤 체홉의 「곰」(1966), 「달이 떠오를 때」(1966), 윤대성의 「출발」(1967), 김길호의 「영웅」(1967), 차범석의 「무적」(1967), 김길호의 「진공시대」(1967),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1968), 글렌 휴스의 「붉은 카네이션」(1968) 등 외국 작품을 번역한 작품이나 차범석, 김길호의 창작 작품도 무대화함으로써 지역 연극도 극작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목포 연극과 학생연극과 방송극을 주도 해오던 김길호는 1964년 「딸」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가작으로 입선하였고 1967년에는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소매치기」로 당선되었다. 그는 1964년 조우코리 원작 「탄갱부」를 목포극협의 제3회 정기 공연 작품을 ‘유원회관’이라는 좁은 연극공간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이것이 요즈음 말하는 소극장 연극이다. 당시 유원회관은 아주 협소한 공간의 회관이었으므로 후에 용빠(BAR)라는 맥주와 양주를 파는 유흥업소가 되었지만 당시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없는 연극인에게 좋은 장소이기도 하였다. 당시 출연진으로는 학생 연극 출신인 한상현, 이중식, 심이주, 문해리, 박종연 등이었고 분장에는 김수호, 진행은 정훈, 무대감독 엄기연, 효과 최진열, 조명 강동문, 장치 백흥기, 기획 김춘추 등 목포예총의 창립회원들이 총망라 되었다.

1966년 6월 목포극협의 제7회 회원극은 목포와 광주와 해남이 합동 공연을 가졌다. 광주에서는 무등극회가 「담배내기」를 목포극협은 그레고리 원작의 「달이 떠오를 때」를 목포의 유원회관과 광주

의 YMCA회관에서 막을 올렸으며 그 해 6월 13 일에는 해남극장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이는 목 포극협의 최초의 지역교류 공연으로 기록된다.

김길호는 당시 목포 연극의 산증인이요 운동 가로서 실제 무대에 직접 서고 희곡을 쓰는가 하면 연출까지를 하는 실로 초인적 에너지를 쏟아 목포 연극을 지켜내고 있었다. 하지만 유일한 공연장이자 연습장이었던 유원회관마저 없어지고 공연을 할만한 무대 하나 없는 목포 연극 활동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1966년 12월 남부교회 1층을 빌려 안톤체홉의



그림 6 1966년 6월 11일 광주무등극회 「담배내기」, 목포극협 「달이 떠올 때」 합동공연을 마치고(목포 유원회관)

「곰」을 김길호 연출로 이정희, 한상현이 출연하여 막을 올리기도 했다. 1967년 윤대성 작 「출발」과 김길호 작 「영웅」이 삼복더위에 연습하여 그 해 9월 막이 오른다.

「영웅」에서 부부로 배역을 맡아 열연한 박건과 안덕검이 후에 실제 부부가 되어 딸을 낳게 된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1968년 12월 셰익스피어 작 「베니스의 상인」과 글렌 휴스 작 「붉은 카네이션」이 공연되고 이듬해 2월 전남매일신문사 초청으로 이 두 작품은 광주로 순회공연을 갖게 된다. 이후 목포 연극은 김길호 작 「표류」(1970), 후리쯔 작 「수업료를 돌려주세요」(1971), 「용감한 사형수」(1972), 이근삼 작 「아름다운 도둑」(1972), 「소쩍새 울음소리」(1972), 안톤 체홉 작 「담배해독」(1972), 루바케 작 「피스톨」(1973), 김길호 작 「회전의자」(1973), 「당신의 독백」(1974), 천승세 작 「붓물 터졌네」(1974), 차신자 작 「행선지」(1975), 존 밀링턴 썬 원작 「계곡의 그늘」(1975), 김길호 작 「어느 늙은 뽀에로의 수첩」 등의 공연이 김길호의 주도하에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1971년의 「수업료를 돌려주세요」는 김길호 연출로 국취예식장에서 막을 올린 다음 그 해 12월 광주 조선대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가졌으나 당시 광주에는 연극극단이나 연극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꽤 수준을 갖춘 목포 연극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바람에 하루 더 공연을 연장하는 아주 특별한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만큼 당시 목포 연극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지역과 상당히 예술적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예술성을 구가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1972년 공연된 「소쩍새 울음소리」를 연출했던 정진은 1980년도 MBC TV에서 방영하였던 사극 「설중매」에서 「한명회」역을 맡았던 사람으로 인천 출신이다. 이 사람이 목포에서 화장품 행상을 하며 연극 활동을 잠시 했던 것이다.

김길호 연극 인생의 자서전 격인 「어느 늙은 뽀에로의 수첩」 공연에서는 예총의 쥐라는 별명을 가

질 정도인 김길호의 삶 특히 고단한 그의 배우 인생이 무대에 묘사된다. 늙은 삐에로 역에 김창일, 젊은 제자 역을 김길호가 맡았다. 특히 배역 선택의 역발상, 명배우로 성장한 제자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몰락한 스승, 당당함과 초췌함의 대조, 젊음과 늙음, 다이나믹한 동선과 나약하게 움츠러드는 동선 공간의 대조가 연극의 주제를 선명하게 하는 연극적 기호를 탁월하게 살린 수작으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작품이다. 그동안 목포 연극과 학생 연극을 주도하면서 남모를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을 김길호는 1975년 목포극협 제25회 정기공연 「늙은 삐에로의 수첩」 공연을 끝으로 가난의 굴레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목포를 떠나 서울로 상경해 연극 인생의 새 길을 모색한다.

목포를 떠난 김길호는 그동안 목포에서 연극적 경험이 밑바탕이 되고 그의 이국적인 흰칠한 외모와 탁월한 연극적 기질로 그는 중앙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일약 대배우로 성장하게 되며 그의 새로운 연극 인생을 구가하게 된다.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의사 지바고」 등 다수의 명작 연극에 출연하여 인정을 받고 ‘동아연극상’, ‘대종상’ 등 많은 수상 경력을 쌓기도 한다.

김길호는 TV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쉬지 않고 연극에 정진하였는데 1984년에는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섬 지방 젊은이들의 비극적 사랑과 죽음을 그린 「울먹섬 이야기」라는 그의 작품이 모태가 된 「해곡」이라는 희곡을 발표해 배우이며 희곡 작가로서 명성을 얻기도 했다. 「해곡」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호평을 받게 되었다.

이 고장에서 발행되었던 『항도주보』 1966년 10월 31일자 김길호 특집에서 “김길호는 지방 극단의 배우였고 방송극 연출가였으며 방송 극작가였다. 그의 희곡 「딸」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입선하였고 뒤이어 「진달래섬이야기」가 신인예술상 희곡 부문에서 수석 당선하였고 동아연극상 희곡 부문에 「울먹섬」이 입선하였다. 이렇게 그는 연기자보다는 희곡 작가로서 그의 기반을 굳건히 하였으며 인재가 부족한 지방 연극계에 뉴페이스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길호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동안 간간히 목포에 내려와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가 되어 결실을 맺는 목포 학생 연극 경연 대회나 그가 열망했던 목포 연극인의 공연이 있을 때면 먼길 마다않고 학생극의 심사 위원으로 참석하여 고향 후배들을 격려하고 덕담을 나누곤 했다.

그 후 김청원 작 「두 개의 얼굴」(1976), 윤대성 작 「너도 먹고 물러나라」(1976), 차신자 작 「행선지」(1976), 깐데로스 형제 작 「사윗감을 구합니다」(1976. 10.), 김길호 작 「어느 늙은 삐에로의 수첩」



그림 7 1986년 목포학생연극경연대회 심사 중인 김길호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1976), 박조열 작 「토끼와 포수」(1977), 윤대성 작 「출발」(1978), 김금지 작 「생명의 소리」(1978) 등의 공연들이 1970년대 후반기에 목포에서 공연되었다. 그 전까지 목포 학생 연극과 목포 연극 활동을 주도했던 김길호가 떠난 후라 목포의 연극계는 구심점을 잃은 연극 활동의 진공 상태가 되어 한동안 휴식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김길호가 연극을 거의 전업으로 삼고 극작에서부터 연출, 출연, 제작 등 실로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목포 연극은 그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런 그가 서울로 떠난 후 그 자리를 대신할 인물이 출현하지 못했던 결과인 것이다.

한동안 목포 연극은 활기를 잃고 표류를 지속하다가 젊은 연극인들이 각성하여 목포 연극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1976년 이성열을 목포극협의 지부장으로, 이재운을 부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당시 김청원이 신춘문예에서 당선한 작품인 「두 개의 얼굴」과 「너도 먹고 물러나라」를 이이식의 연출로 노동회관에서 공연하게 된다. 이어서 9월에 중앙극장에서 공연된 「행선지」는 박혜경 연출과 백동운, 이재운, 최희자의 출연으로 공연하였으나 출연자였던 최희자가 급성맹장염으로 무대에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대사를 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며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공연 직후 실신해 당시 차남수 외과 병원에서 긴급 후송, 응급 수술을 받는 소동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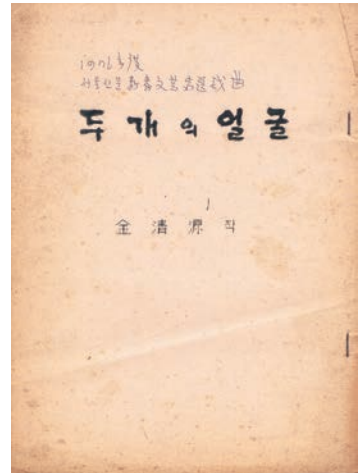


그림 8 1976년 두 개의 얼굴 당시 대본

응급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어떻게 이런 몸으로 연극 공연을 할 수 있었냐.”고 동료 연극인들을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 해 10월에는 목포 출신으로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으로 구성된 중앙 연극과 목포 연극이 합동으로 공연하게 되었다. 그 공연이 이른바 「사윗감을 구합니다」로 김길호가 연출하였다. 그것을 주축으로 남일극장에서의 공연은 대성황을 이루어 모처럼 목포 연극에 활기를 불어 넣어 김길호 작 「어느 늙은 삤에로의 수첩」이 공연되었다. 「사윗감을 구합니다」에 출연한 배우로는 탤런트로 인기를 구가하던 박상조, 이금복, 김호영, 홍순창, 김길호 등이었다.

그 후 1977년 김명규 연출의 「토끼와 포수」, 1978년 「출발」, 「생명의 소리」가 이성열 연출로 막을 올렸으나 그 활동이 미흡하였고 목포 연극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목포극협의 회원들도 뿔뿔이 흩어져 회원들의 주소조차 알 길이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정기 회원 공연도 1979년에는 올리지 못한 채 당시 지부장이던 이성열도 사표를 던지고 협회를 떠나버렸다.

4. 1980~1990년대 목포 연극과 그 활동

1959년부터 1975년 말까지 그동안 목포 학생 연극과 목포의 성인 연극을 헌신적으로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목포 연극을 계승·발전 시켜오던 김길호의 상경은 한동안 목포 연극의 침체기로 작용한다.

그 뒤에도 75년 5월에 극단 '민예'의 허규 작·연출 「서울말뚝이」, 같은 해 10월 극단 '산하'의 차범석 작, 표재순 연출의 「셋이서 왈츠를」, 1977년 4월 역시 극단 '산하'의 지인카 작, 이진수 역, 차범석 연출 「사랑하는 마리」, 1979년 극단 '춘추'의 문고현 연출 「내사랑하는 풍보」, 극단 '성좌'의 테네시 윌리엄스 작. 오희선 역, 권오일 연출 「뜨거운 양철지붕위의 고양이」 등 내가 목포를 떠난 뒤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¹²⁾

보는 바와 같이 목포 출신 서울 연극인들이 고향 목포에 가끔 자기가 소속해 있는 극단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이끌고 공연을 함으로써 연극 공연은 끊이지 않고 목포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일회성에 그쳤으며 목포 연극의 정체성과 역사성에는 별반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 1980년 당시 30대였던 젊은 연극인 이재운과 김창일이 목포 연극의 침체기를 벗어나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극회 '마당'이다. 20여 명 정도의 젊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김길호와 함께 연극의 맥을 같이 했던 연극인들이 시내 영양식당에서 회합을 갖고 김창일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창립공연으로 오태석 작 '환절기'를 공연하기로 결정하고 연습에 임했으나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공연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극회 '마당'은 아무런 공연 실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1) 목포 연극의 부활과 그 활동

목포 연극을 부활시켜 보고자 하는 몇 번의 시도와 노력은 있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이 1981년 목포예술제 일환으로 김창일 연출의 「백조의 노래」, 1982년 이재운 연출의 「곡선」 등 소품 위주의 막을 올리는 정도였으며 목포 연극의 활동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1982년 12월 임원 개선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 목포 연극협회는 회원을 젊은 회사원(은행원),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부장에 이재운, 부지부장에 박대일이 선임되어 야심차게 활동을 재개하였다. 첫째 사업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 수상 작품을 목포에 유치하는 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목포에는 지금의 구도심

12) 김길호, 같은 글.

에 위치한 ‘트윈스타 빌딩’ 자리에 있던 ‘시민회관’이라는 다목적 회관 이외에 공연시설 하나 변변치 못했던 시기이다. 1983년 극단 에저포의 ‘농녀’, 극단 ‘성좌’의 ‘적과 벽’, ‘봄날’ 등이 당시 전국 순회공연 중 목포를 찾아 준 공연이며, 여건상 불리한 조건을 가진 목포에서 계속해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협회를 이끌었던 이재운의 숨은 노력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비록 외부 극단 초청 공연이었지만 수준 높은 중앙의 연극을 목포에서 공연하여 시민들에게 창의적 기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목포 연극인들에게는 연극적 안목을 높이고, 연극의 저변을 넓히는 측면에서 무척 고무적이며 목포 연극사에 남길만한 일이었다. 그 후 서울 ‘민예’극단의 ‘놀보전’ 공연을 노동회관에서 하기도 했다.

이렇듯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목포 연극은 1983년 3월 이재운 작·연출의 ‘구름을 타는 사람들’, 9월에 역시 이재운 작·연출의 ‘무인도’가 공연되었으며 10월에는 윤대성 작, 이재운 연출의 ‘생일파티’가 노동회관에서 4일간 7회의 공연을 가졌으며 공연장 하나 없었던 목포의 연극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 해 12월 목포 연극 활성화를 위한 주제 강좌가 1983년 ‘연극인의 밤’을 처음 개최한 자리에서 펼쳐진다. 문인 박순범의 ‘측면에서 본 목포 연극’, 황의돈의 ‘정면에서 본 목포 연극’이라는 주제로 예충회관에서 가졌으며 이는 목포 연극을 주제로 공식적으로 가진 최초의 강좌였으며 목포 연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색다른 시도로 신선한 충격을 안기는 일이었다.

2) 연극 전용 소극장 ‘예술인사랑방’ 탄생과 그 의미

1984년 이 해는 목포 연극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생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술인사랑방’이라는 연극인 전용 공간인 소극장이 마련된 일이다. 당시 협회장이었던 이재운이 사재를 들여 당시 공설시장 2층(시민회관)에 객석 150석, 분장실, 사무실 등을 갖춘 5평의 연극 전용 소극장을 만든 것이다. 이는 공연장 하나 없는 목포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곳은 연습장과 공연장을 겸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 세미나 및 만남의 장소, 연극인들의 휴식처로, 창작공간으로 그야말로 연극인들에게는 꿈의 공간이었다. 또한 그곳은 목포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예술 활동의 정보 교환 및 준비 장소로서 또 무대 장치며 소품들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기획했던 우리지역 예술의 보물 창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즉, 1959년 김길호에 의해 탄생되었다가 1966년에 중단된 목포 학생 연극 경연 대회가 18년만에 부활된 계기가 되었으며 목포 연극이 제2의 중흥기를 맞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인사랑방’의 탄생은 여러 면에서 목포 연극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그 의미가 깊다 하겠다.

1984년 9월 22일 차범석을 비롯한 목포시장, 예술계, 상공인 등 목포의 기관장들이 두루 초청되

어 소극장 ‘예술인사랑방’ 개관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으며 ‘예술인사랑방’ 복도 양편에 커팅 테이프를 성신간호전문대(지금의 목포가톨릭대) 학생이었던 자그마한 체구의 두 여학생이 잡고 서 있었다. 목포의 연극인뿐 아니라 예술인들과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개관식은 거행되었다. 개관기념 공연은 차신자 작, 이재운 연출의 「행선지」가 공연되었으며 강대흠, 박희정, 김영이 출연하였다. 당시 공연을 관람한 차범석은 사내 역을 맡았던 강대흠을 보고 “너는 무대에서 폼을 너무 잡는다.”고 추상같은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대흠으로서는 연극무대에 처음 서보게 되는 것이니 대한민국연극계의 대부 앞에서 어지간히 떨렸고 긴장했을 것이다. 강대흠은 후일 차범석 선생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그 때의 충격을 말하곤 하였다. 또한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좋은 연기자, 좋은 연극인이 되겠다고 늘 다짐했다고 한다.

10월에는 제9회 목포학생연극경연대회가 부활되어 유치진 작 「조국」이 참가작으로 지정되어 목포 시내 중·고등학교의 연극반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이때부터 학생연극의 불이 조성되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술인사랑방’은 학생들로 북적거렸으며 시민회관 강당 이곳저곳에서는 각 학교 연극반 학생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밤늦도록 연습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각 학교 간 보이지 않는 경쟁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했다. 이는 목포 연극의 미래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기도 했다. 1983년에 이어 1984년도에도 ‘연극인의 밤’을 개최하여 행남사 김준형 회장의 「시민이 본 목포 연극」, 당시 문협지부장이었던 최일환이 「앞으로의 목포 연극」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미래의 목포 연극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당시 이재운 연극협회 회장은 다각도로 목포 연극의 발전과 활성화를 꾀했으며 학생 연극의 부활에도 남다른 족적을 남겼다.

그 해 젊은 연극인으로 구성된 ‘객석’이라는 극회가 탄생하였는데 주로 목포의 대학생 중심의 남자들과 성신간호대 여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창립 공연으로 오영진 작, 김창일 연출의 「맹진사댁 경사」가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지하 강당에서 펼쳐졌는데 딱히 공연장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는 좁은 지하 강당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운집해 있었다. 배우들의 대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연극을 시작하였으나 도저히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연출자, 김창일이 무대에 올라가 연극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당부하고 연극 공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듬 해 젊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진 극단 트락이 창립되었다. 목포 최초의 카페 소극장을 개관하였는데 당시 김창일의 친구가 운영하는 장안목욕탕(지금의 이로시장 부근) 지하에 50평 규모의 지하 카페를 개조하여 연극에 필요한 무대를 만들고 조명기를 설치해 연극 공연을 했던 것이다. 그 소극장의 이름을 트락이라 했으며 소극장 개관기념공연으로 윤대성 작, 김창일 연출의 「출발」이 공연되었다. 그 후로 「청혼」, 「바다로 가는 기사」, 「담배내기」, 「너도 먹고 물러나라」, 「생명의 소리」 등

이 공연되었다. 또한 트락 소극장은 평소 음악 다방이었기에 손님(관객)들에게는 입장으로 대신 커피값 500원 만 받았던 것이다. 트락 소극장이라는 당시 연극인들에게는 좋은 창작 공간이 생긴 것으로 지하의 트락 소극장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음악과 차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시설, 심지어는 음악 다방 뮤직박스에 LP판이 수천 장 꽂혀 있었다. 뒤편으로 방이 있어 이른바 숙식이 해결되는 천국과 같은 연극인들의 아지트였다고 그곳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가끔 추억삼아 그 때를 회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트락 소극장은 어려운 경영난에 문을 닫고 만다. 그도 그럴 것이 50평 남짓한 장소에 연극을 보러오는 관객은 적고, 가끔씩 찾는 관객이라 해봤자 500원씩 받는 입장료로는 전기 요금이며 운영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목포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카페식 소극장의 발상은 꽤 진보적 발상으로 지역 연극을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훗날 목포 연극이 전국적으로 그 위상을 선양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극단 트락은 이듬 해 제8회 정기 공연 물리에르 작 「수전노」를 목포 KBS 공개홀에서 9월 12일~13일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였으나 트락을 주도하였던 김창일과 주축 멤버였던 강대흠은 훗날 목포 연극에 주도적 인물로 꾸준히 활동하며 목포 연극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한다.

3) 전국 연극제 탄생과 목포 연극의 활동

(1) 최초의 전국대회 참가 '불모지'공연

1983년 한국문예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한국연극협회가 주최가 되어 지역 연극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연극의 균형적 발전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전국의 광역시·도의 대표 극단의 경연대회인 전국연극제가 신설되면서 목포 연극은 새로운 도약기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에서 일약 연극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된다. 목포 연극이 최초로 전국 연극제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 것이 차범석 작, 이재운 연출의 「불모지」이다. 이 작품은 1985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기 전 전국 연극제 전라남도 예선대회를 광주 지역의 극단이 참여한 선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 연극제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자격을 획득하여 우리지역 최초로 그 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 지방 연극제(현, 전국연극제)에



그림 9 1985년 불모지 당시 팸플렛

출품하게 된다. 이는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의 여타 시·군 예컨대 순천, 여수, 광양, 나주, 해남 등의 연극과는 그 예술적 완성도나 수준에서 월등한 기량을 가진 목포 연극의 잠재된 역량의 표출이며 뿌리 깊은 목포 연극 역사 우수성의 과시이기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중앙의 우수 극단 초청 공연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서 엄두도 내지 못할 때 목포에서는 매년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한 기회로 말미암아 목포 연극이 연극에 대한 안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그 기량 또한 우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개 시·도 대표극단이 경연을 펼치는 본선에 가서는 입상하지 못했지만 나름 목포 연극이 대외적으로 목포의 색깔을 선양하는 데 기여한 바 크다. 그 「불모지」 공연은 연습 때에 원작자인 차범석이 목포에 내려와서 직접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 연극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강대흠은 그때 느꼈던 차범석 선생의 예술가로서 우리나라의 기질이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경지였다고 술회했다.

1985년 제3회 전국 연극제 전라남도 예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목포극협의 「불모지」는 당시 전라남도 전석홍 지사의 초청으로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다녀온 바 있으며, 목포에서도 4월 20일~5월 5일 장장 15일간 20회 공연 기록을 세운 목포 연극 역사상 이례적 공연이다. 1986년 이재운 연출의 「우리들끼리만의 한 번」, 「이혼파티」가 공연되었으며 제11회 학생 연극 경연 대회에서는 후르르 작 「수업료를 돌려주세요」가 공연되었다.

(2) 섬 사람들의 향토성을 강조한 「갯바람」 공연과 목포 연극

1987년 도서 지방 사람들만의 애환과 고유한 삶의 질곡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신안 해저 유물 도굴 사건으로 방축리라는 섬을 발각 뒤집어 놓은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인 김창일 작·연출의 「갯바람」이 제5회 전국 연극제에서 단체 우수상(문공부장관상)과 개인 희곡상(김창일), 남자연기상(강대흠)을 휩쓸면서 목포 연극이 최초로 전국연극제에서 입상하며 일약 연극 메카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이 작품은 순박한 시골을 재물에 눈이 어두워 파멸시키는 몰가치 한 인물들의 행각이 고발, 비판되면서 향토애를 잃지 않고 우리 것을 지키려는 주인공의 집념이 감동적 그림으로 무대화되었다. 이와 같이 목포 연극이 전국무대에서 「불모지」가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고 「갯바람」이 상을 휩쓸며 목포 연극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1988년 김창일 작·연출의 「도시탈출」, 1989년 김창일 작·연출의 「안개섬」이 연속으로 전국 연극제에서 단체 장려상과 개인 희곡상(김창일)을 3년 연속 수상하면서 김창일은 목포가 낳은 극작가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그 해 어린이 극 「보물섬」, 「홍당무」가 손종환 연출로 공연되었으며 1989년 제54회 정기 공연으로 「출발」, 「생명의 소리」 등이 연작 시리즈로 공연되었으며 「생명의 소리」 연출을 맡았던 김영균은 피부과 원장으로 당시 연극계에서는 보기 드문 직업군으로 그 이후로도 목포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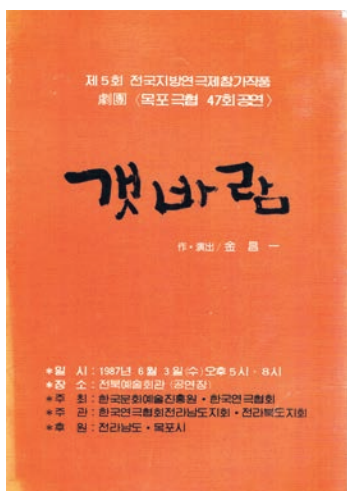


그림 10 「갯바람」 팸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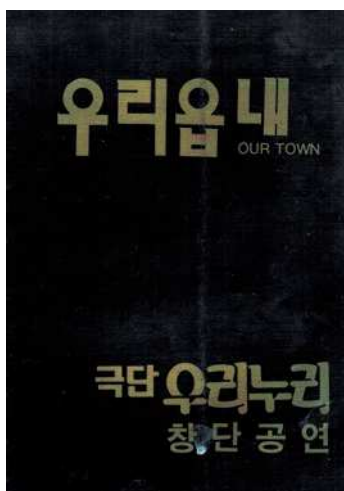


그림 11 극단 '우리누리' 창단공연 팸플렛

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 같은 해 12월 몰리에르 작, 강대흠 연출의 「수전노」가 공연되었으나 공연 제작비로 기부한 김영균의 기부금이 명확하게 쓰여지지 않아 당시 집행부와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기도 하였다. 이러한 목포극협 내의 불협화음은 당시 또 다른 형태로 분출하는데 그것이 곧 당시 체제에 염증을 느낀 일부 젊은 연극인들이 주체가 되어 7월에 결성한 극단 ‘우리누리’이다.

극단 우리누리는 1990년 9월 창단 공연으로 손튼라일드의 「우리읍내 사람들」을 공연하며 목포 연극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새롭게 출발했던 것이다. 당시 극단 우리누리 대표였던 손종환은 창단사에서 이렇게 썼다. “한동안 길모양만 번지르르했던 과거의 목포 연극을 청산하고 내적으로 성장, 굵직한 알맹이를 채워 나날이 원숙해 갈 수 있는 목포 연극의 터전을 마련하려 합니다.” 그 후 1990년 「늙은 도둑 이야기」, 1991년 「보물섬」,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등 수차례 공연 끝에 활동을 중단하게 되지만 극단 ‘우리누리’의 창단과 활동은 목포 연극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나 지역 연극을 이분화시키는 목포 연극의 단합을 저해하는 양면의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천승세 작, 강대흠 연출의 「만선」이 제8회 전남 연극제에 출품하였으며, 1991년에는 1959년 창립했던 목포극협이 차범석이 지어준 극단 ‘선창’으로 개명하게 된다. 차범석은 목포가 항구로써 배가 들고나며 바닷가 항구의 이미지를 살리며 목포를 상징하는 ‘선창’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1991년 김창일 작, 오덕표 연출의 「샘골토박이」, 5월에 어린이뮤지컬 「보물섬」이 목포에서, 7월에

는 광주 드라마 스튜디오 초청으로 광주학생회관에서 공연되었으며, 10월 김창일 연출로 「홍당무」가 마산전용소극장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 소극장 연극축제에 참가하게 된다. 10월 12일~13일까지 개최된 제16회 목포 학생 연극 경연 대회에서는 하상길 작 「더러운 신의 발자국」의 7편이 공연되었으며 10월 24일 여수시민회관에 남도 한마음 축제 축하공연으로 김창일 연출의 「홍당무」가 공연되었다.

1992년 제10회 전남 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창일 작·연출의 「꽃머느리」는 그 해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 연극제에서 단체 장려상을 수상하는 데 그쳐 전국 연극제에서 보여주었던 목포 연극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결과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1992 하계워크숍 공연으로 손종환 연출의 「도시 탈출」, 「리타 길들이기」가 제4회 마산전국 소극장 연극제에 참가했으며 1993년 제11회 전남 연극제에 「이방인들」, 「보물섬」, 「에바스미스의 죽음」이 공연되었다. 특히 김창일 연출의 「에바스미스의 죽음」은 그 해 11월 제5회 마산 소극장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이 공연은 목포 연극이 다시 활성화 되는 신호탄으로 그동안 목포 연극계를 잠시 떠나 있었던 연기자들이 가세하여 목포 연극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무대가 되었다. 그 해 손종환 연출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소극장 '예술인사랑방'에서 공연되었다.

(3) 황혼의 삶과 노을의 찬란함 「붉은 노을 속에 허수아비로 남아」 공연과 목포 연극

고향을 떠나 재벌회장이 되었지만 병든 몸이 되어 다시 찾은 고향,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짓눌려 있음에도 이를 내면으로 승화시켜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지하게 관조하는 작품인 김창일 작·연출의 「붉은 노을 속에 허수아비로 남아」가 1994년 제12회 전국연극제에서 영예의 단체 대상(대통령상)과 개인 희곡상(김창일), 남자최우수연기상(강대흠)을 휩쓸며 목포 연극의 우수성과 위상을 선양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로써 '김창일'은 비로소 목포가 배출한 대한민국의 걸출한 연극인과 희곡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붉은 노을 속에 허수아비로 남아」는 시한부 인생, 죽음, 절박함이라는 반동적 상황이 작품 배면에 배어 나타남으로써 연극적 긴장감이 구성의 탄탄함과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관객을 극적 일루션(환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수작으로 평가되는 김창일의 최고의 역작이다. 전국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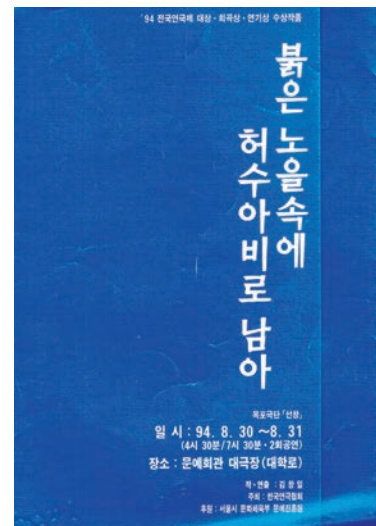


그림 12 「붉은 노을속에 허수아비로 남아」 팸플릿 (1994년 제12회 전국연극제 단체 대상(대통령상), 희곡상, 남자 최우수연기상 수상)

제 대상작(대통령상) 「붉은 노을 속에 허수아비로 남아」는 그 해 8월 30일~31일 서울문예회관에서 서울 연극제 공식 초청공연을 하였다. 당시 영광의 대통령상 수상 주역들은 강대흠, 정기복, 김린, 김재영, 장가람, 노인화, 김대덕, 김대혁, 박충훈, 오덕표, 이지나이다. 또한 「붉은 노을 속에 허수아비로 남아」는 1995년 한국문예진흥원 우수 작품 레퍼토리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5월 14일에 여수 시민회관, 5월 26일에 해남 군민회관에서 공연되어 수준 높은 목포 연극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5년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연극동호회 ‘연열’의 「두 남자 두 여자」가 손종환 연출로 9월 13일~24일 갯돌 소극장(지금의 목포소방서 건너편 지하)에서 공연되었다. 손종환은 1996년에 김우진의 호를 따서 ‘초성’이라는 극단을 조직하여 창단 공연으로 「신의 아그네스」를 공연하는 등 목포 연극의 새 길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996년에는 「역마살」이 김창일 작·연출로 제14회 전국 연극제에서 단체 우수상(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해 또 한 번 목포 연극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하지만 목포 연극은 외적으로는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상위 클래스에 위치해 있는 듯 하였지만 내적으로 조직체계가 너무 허술하여 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조직에 대한 불만 세력들도 존재하였다.

그 해 「역마살」은 11월에 마산 국제연극제에 초청작으로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당시 배역을 맡았던 정현철은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공연장인 마산에서 합류하여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다. 목포에서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무대 장치며 공연에 필요한 소품들을 준비하여 출발하였다. 그날따라 비가 몹시 쏟아지는 상황에서 합류하기로 약속했던 정현철은 약속 시간에 공연장에 나타나질 않았다. 모두들 전전긍긍하던 차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정현철이 도착을 했다. 당시 정현철이 경차를 손수 운전하여 억수로 내리는 빗줄기 속을 약속시간에 맞추려고 과속을 하다 차가 그만 전복되는 사고가 났던 것이다.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고 차만 전인조치 시키고 늦게나마 공연장에 도착해서 새벽까지 무대 장치를 끝내고 다음날 차질 없이 공연을 마쳤지만 하마터면 공연을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었던 그날의 ‘티코가 하늘보고 누운 사건’은 잊지 못할 에피소드였던 것이다.

그해 12월 광주문화예술회관의 ‘화요예술무대’에 초청되어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역마살」 공연을 끝으로 당시까지 목포 연극 협회를 이끌었던 김창일은 임기를 마치고 1997년 1월 오덕표를 목포 연극협회 제9대 지부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분위기를 전환한 가운데 그해 제15회 전남 연극제에서는 우리나라 리얼리즘극의 최고봉인 차범석의 대작인 「산불」을 강대흠 연출로 공연하였다. 연출상(강대흠), 최우수연기상(노인화), 무대미술상(정현철)등 상당히 성과를 거둔 공연으로 출연자만 20여

명이 넘는, 지방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연극으로 당시 심사 위원이었던 김금지(연극배우)는 “목포의 「산불」의 무대는 너무 예뻐 그 속에 들어가 살고 싶은 정도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산불」은 10월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 겸 목포문화예술회관 개관을 기념하는 공연을 가졌다.

1998년 1월에는 당시 지부장이었던 오덕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부장직을 사퇴하여 강대흠이 목포연극협회 제10대 지부장에 선임된다. 당시 오덕표 지부장이 지부장직을 사임하게 된 배경에는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연극협회의 수장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해내기가 벅찼을 것이고 또한 전문 연극인이 아니라는 핸디캡도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 후 1998년 강대흠 연출의 「피고지고 피고지고」, 1999년 「막차 탄 동기동창」, 10월에는 제39회 목포예술제 제86회 회원극 정기공연으로 강대흠 연출의 「해가 지면 달이 뜨고」가 공연된다.

5. 2000년대~현재까지 목포 연극과 그 활동

1) 연극 전용 소극장 ‘예술인사랑방’의 재탄생

1990년대 말 목포시민회관의 폐쇄(부실 건물로 지정되어 잠정적 폐쇄)로 인해 시민회관 내에 자리했던 소극장 ‘예술인사랑방’도 폐쇄되고 목포 연극협회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잠시 혼란기를 맞은 목포 연극은 연극 전용 소극장 ‘예술인사랑방’의 재건립으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1996년 시민회관의 폐쇄로 일시에 연극 활동 공간을 잃어버린 목포 연극인들은 길거리로 나왔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한 곳이 ‘문화의 집’이다. (구)달성초등학교 건물을 목포시에서 관리·임대하여 여



그림 13 2000년 11월 25일 ‘예술인사랑방’ 재개관 테이프 커팅 장면
(좌로부터 미술인 정다운, 김병고, 현 한국예총회장 하철경, 김길호, 강대흠, 차범석, 목포시의회의장 최기동,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박웅, 목포예총회장 최일환)

타의 예술단체들이 입주하여 사무실 혹은 연습실로 사용하였다. 목포 연극 협회도 한 편에 사무실과 연습실을 임대하여 1999년까지 사용하였다. 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유달산 기슭에 위치해 있어 학생연극 때문에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협회 업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성인 연극인들도 공연에

필요한 소품이나 의상, 무대장치들의 보관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연극인들의 활동 공간을 모색하였던 바, 현재 1호 광장 교보생명 옆에 자리한 연극전용소극장 ‘예술인 사랑방’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 11월 25일 재개관하게 된다.

소극장의 탄생은 목포 연극인에게는 하나의 염원이며 꿈의 장소임에 틀림없으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소극장이 재탄생 되었다. 차범석, 김길호 등 목포 출신 유명 연극인과 박웅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목포시장, 목포시의회의장 등 많은 인사들이 당시 지역의 작은 소극장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할 정도로 목포의 연극인들에게는 큰 잔치요, 큰 사건이었다.

당시 차범석은 격려사에서 「애향 목포의 자존심을」이라는 대제목으로 “내 고향 목포에 소극장이 선다니 참으로 대전하고 고맙고 응골지다. 모르면 몰라도 몇 천역을 챙기는 줄부나 회전의자에서 큰 소리만 치는 관청의 나으리들에게는 모기 우는 소리만도 못할 것이다. …… 이제 연극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세워진 이 소극장이 또 하나의 도약판이 되고 제2의 르네상스가 될 것을 믿는다. 파이팅! 목포 연극! 파이팅! 목포예술인!”이라고 했다. 차범석의 격려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연극인에게 할 수 있는 무대란 그만큼 중요하고 연극 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소극장 ‘예술인 사랑방’의 재건립을 계기로 김태수 작, 강대흠 연출의 「해 뜨면 달이 지고」, 2000년 소극장 개관 기념 공연 유원익 연출의 「위기의 여자」, 2001년 서울온미디어극회 초청공연 손종환 연출의 「고도를 기다리며」, 손종환 연출의 「남자충동」이, 제90회 정기 공연 겸 제19회 전남 연극제 출품작으로 공연되어지는 등 연극 전용 소극장 ‘예술인 사랑방’이 다시 생긴 이후 목포 연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 이후 수많은 활동들을 이어가게 된다. 같은 해 6월에 김훈 연출의 「회상」, 「아름다운 사인」, 2002년에 손종환 연출의 「이」, 강대흠 연출의 「김치국 씨 환장하다」, 강대흠 연출 「꽃마차는 달려간다」, 2003년 박충훈 연출의 「삽 도끼」 등 재탄생한 소극장 ‘예술인 사랑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목포 연극이 활동을 재개하였던 것이다.

이즈음 지역공연 문화 활성화와 연극을 통한 문화 예술 교육을 표방하며 정권숙이 주도하는 극단 ‘새결’이 2001년 창단하여 자체 소극장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토요 꿈다락’ 등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권숙 작·연출의 「돌아오지 않는 오월」 등 자체 레퍼토리 공연을 개발하여 창작 작업에도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 목포 사람들의 목포 이야기 「옥단어!」 공연과 목포 연극

2004년 4월 19일에는 목포 연극이 극단 ‘목포극협’에서 극단 ‘선창’으로 개명한 이후 100번째 맞는 회원정기 공연으로 자체적으로 상당히 성대하게 공연을 준비하였다. 당시 차범석의 고희 기념 작

품이기도 한 「옥단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초반~1950년대 후반 목포 유달산 기슭에서 실제로 살았던 실존 인물을 극화한 것으로 “서민과 친숙했고 지체 부자유자였던 그녀는 인간미가 한결 같이 좋고 천성이 고와 만인의 친구이자 말벗이었다.”라고 「옥단어!」의 작가 차범석은 말하였다. 본 희곡 제목인 「옥단어!」는 누구를 지칭할 때 자음이 받침으로 끝나는 이름일 경우 조사 ‘-아’를 붙이는데 우리 목포말로 쓸 경우 ‘-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옥단’ 이름에 순 목포말 ‘-어’를 붙여 희곡의 제목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렇듯 정기 공연 100회라는 횟수가 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 그동안 목포 연극의 탄생기부터 현재까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기념하자고 하는 의미도 이면에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연출을 맡았던 강대흠은 “목포의 작가가 목포의 이야기를 목포 사람에 의해 무대화하는 것, 그것이 곧 지역 연극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연극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던 바였다. 연극 「옥단어!」는 스텝과 연기진을 합치면 줄잡아 4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한, 지역 연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작중의 대작이었다. 서울에서는 극단 ‘연희단거리퍼’에서 차범석 고희 기념 공연으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 바 있고, 목포에서는 목포 극단 ‘선창’에 의해 공연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수많은 출연진도 출연진이지만 극중 소재가 된 목포의 유달산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극중 묘사 장면을 적절히 표현해 내기 어려운 점, 전라도 특유의 맛깔나는 사투리 등 목포만이 갖는 특수한 극적 요소들을 표현해 내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공연화하기가 쉽지 않아 관객으로 하여금 극적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옥단어!」 공연은 극중 찻집 장면에 극단 ‘갯돌’이 찬조 출연하여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그 해 전남 연극제에서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제22회 전국 연극제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단체 은상(한국문화예술위원장상), 개인 여자연기상(임세진)을 수상하여 목포 연극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도 하였다. 「옥단어!」 공연은 그 해 5월 1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 기념공연으로 공연되기도 하였다.

이후 「날보러 와요」(2005, 장가람 연출), 「북어대加里」(2005, 강대흠 연출), 「소풍」(2006, 강대흠



그림 14 2004년 「옥단어!」 공연 안내장

연출), 「생명의 소리」(2007, 강대흠 연출), 「아버지의 노래」(2008, 강대흠 연출), 「늙은 부부 이야기」(2008, 강대흠 연출), 「그 여자의 작은 행복론」(2008, 강대흠 연출),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 2009 서울 연극 페레이드 참가작 「늙은 부부 이야기」(강대흠 연출), 「아비」(2009, 장가람 연출), 「너도 먹고 물러나라」(2009, 강대흠 연출), 「바람분다 문열어라」(2009, 강대흠 연출), 「생명의 소리」(2009, 강대흠 연출) 등이 무대에 올려졌다. 특히 2008년 강대흠 연출 「아버지의 노래」는 물질 만능 시대에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식들이 재산 상속 문제로 아버지를 죽이는 반인륜적 세태를 고발하는 풍자극으로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저버리는 현대 사회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노래」는 그 해 전남 연극제에서 단체 최우수상과 개인 연출상(강대흠)을 수상했으며, 제26회 전국 연극제에 출품해서는 단체 은상과 개인 남자연기상(강대흠)을 수상하여 목포 연극의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 해에는 2006년 작고한 차범석을 기리는 행사인 '차범석 연극 공연'을 집필한 희곡 중에서도 한 편 씩 골라 1년에 한 작품씩 공연하게 되었다. 예술가로서 치열하게 살다간 고인을 추모하고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반추하며 고인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고 창달·발전시키기 위한 공연이었다. 2008년 '제1회 차범석 연극 공연' 첫 번째 작품은 「그 여자의 작은 행복론」이었으며 이 작품은 차범석이 소극장 연극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희곡이다. “좁은 공간에서 무대와 객석이 혼용일치된 분위기 속에서 기쁨을 얻는 소극장 연극에서는 요란스럽거나 과장된 무대 메커니즘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조용히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로 관객에게 깊이 파고드는 호소력이 그 생명일게다.”라고 차범석은 소극장 연극의 연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차범석 연극 공연' 첫 번째 작품은 한 여인을 통해 인생을 관조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써 소극장 연극의 묘미를 관객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듬해인 2009년 1월 9일~10일 '한국연극 100년'을 기념하는 한국연극협회 초청공연이 서울아르코시티소극장(현,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늙은부부 이야기」가 그것이다. 남편과 아내를 사별한 두 늙은 노인이 인생의 황혼녘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노인들 간의 애뜻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다. 1994년 제14회 전국연극제에서 대상 수상작인 「붉은 노을 속에 허수아비로 남아」가 서울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서울 연극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어 공연되었다. 실로 오랜만에 목포 연극이 서울로 나들이를 한 셈이다. 특이한 일은 목포 출신으로 연극계 대선배이신 최명수가 노구를 이끌고 공연장까지 찾아와서 금일봉까지 주며 고향 후배들의 서울 나들이 공연을 축하해 준 일이다. 최명수는 60년 가까운 세월 만에 목포 연극을 서울에서 보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을 것이고 목포의 후배들 또한 전설 같은 목포의 대선배를 서울의 공연장에서 만나는 뜻밖의 영광 때문에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일임에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

3)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목포 연극과 그 활동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으며 문화 산업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임을 강조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내면서 우리나라 문화정책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정책이 과거 ‘소액다건(少額多件)’의 일반적 지원에서 전문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단체나 개인을 선별하여 차별화하는 선택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목포의 연극도 위의 지원 사업의 혜택에 힘입어 2012년부터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연극인의 안정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창작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의 일환인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토요 문화 학교,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사업 등 각종 문화 관련 지원 사업의 확대로 다른 장르의 예술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목포의 연극계에도 상당히 활발히 활동하게 된 시기이다.

2010년 「철조망이 있는 풍경」은 제28회 전남 연극제에서 단체 최우수상과 개인 연출상(강대흠)을 수상하여 부산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 연극제에 전라남도 대표 참가 작품이며 2010년 차범석 연극 공연 강대흠 연출의 「위자료」, 무대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인 「북어대가리」(2010, 장가람 연출), 12월에 소외 계층 순회 사업인 「연극아, 놀자」(2010)가 명도복지관에서 공연된 바 있다. 2011년에는 「북어대가리」(장가람 연출), 「서툰사람들」(한상민 연출)이 공연되었고, 2011년 차범석 연극 공연으로 「장미의 성」(강대흠 연출)이 목포시에서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소극장으로 개조한 남교소극장에서 최초로 공연을 가졌다. 그러나 소극장을 리모델링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연장 용도에 맞는 설계와 시설들을 해야 하는데도 무대 바닥의 재료나 조명 기구, 음향 장비 등 공연 예술에 적절하지 않는 장비나 시설들이 배치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고 정작 공연 예술 단체의 공연장으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2년부터는 목포 연극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초연 창작 공연, 우수 작품 레퍼토리 공연, 지역 교류 공연, 문화 예술 교육 사업 등 지원 사업 일환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창작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목포 연극인으로는 자생력을 확보하고 자체 창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의 역량 강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지역 교류 공연 「늙은 도둑이야기」(2012), 초연창작 모노드라마 「돈」(2012), 우수작품레퍼토리공연 「왕교수의 직업」(2012), 「연극아, 놀자」가 목포시내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초연 창작 모노드라마 「돈」은 강대흠이 출연하고 서울 대하극단의 대표인 한국 연극의 원로 연출가 김완수가 목포에 상주하면서 연출한 작품

으로써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속성을 여러 부류의 인간을 통해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인간과 돈’이라는 보편적이면서 특이한 주제는 관객으로 하여금 상당한 반향과 호응을 얻었으며 2013년에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교류공연으로 무대에 서기도 하였다. 연출을 맡았던 김완수는 그 해 11월 혈액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이듬해 1월 유명을 달리하여 그가 연출한 「돈」은 그의 유작이 된 셈이다.

2013년에도 역시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의 일환으로 목포 연극은 계속 활발히 활동하게 되는데 「황홀한 고백」(강대흠 연출), 「돈」(강대흠 연출), 「위대한 유산」, 「성난기계」 등이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2014~2015년 2년 계속 사업으로 목포 연극협회는 극단 ‘선창’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게 되며 공연작으로는 「목포는 항구다」, 「어머니의 바다」, 「붉은 꽃 푸른 메아리」, 「차력사와 아코디언」, 「북어대가리」, 「그들만의 조기」를 들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바다」는 2009년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한 목포 출신 희곡 작가인 정경진의 작품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가슴 아픈 우리 현대사의 한 부분을 다룬 연극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는 세력들에게 자각을 촉구하고 경종을 울리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단원들의 재능 기부 형식의 도네이션 공연이었던 「어머니의 바다」는 광주 가톨릭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 공연장인 예술인 사랑방까지 찾아와서 관람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문화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문화 소외 지역 없이 전 지역민 모두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둔 소외 계층 순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례 산동농협, 임자 진리, 증도 병풍도의 낙도 오지를 찾아가 주민들과 교류·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12월에는 1995년 창단되어 상임연출자 체제로 유지해 왔던 목포시립극단이 객원 연출 체제로 운영 체제를 바꾸고 강대흠 목포 연극협회장이 객원 연출자로 선임된 뒤 목포시립극단과 합동으로 차범석 작, 「산불」을 계획, 공연하게 된다. 1997년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 공연과 목포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공연으로 「산불」을 20년 만에 순수한 목포 사람들에 의해 다시 공연된 것이다.

1997년 당시 연출을 맡았던 강대흠은 「산불」 공연을 앞두고 초대의 글에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이니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과 젊은 패기로 출연진 만 스무 명이 훨씬 넘고 제작진까지 합하면 줄잡아 사십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그야말로 선생님의 대작중의 대작을 해 보겠다고 겁 없이 덤벼들었던 것 같다. …… 그로부터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목포 연극인들의 아련한 그리움이 담긴 그 「산불」을 다시 올린다니 괜히 마음부터 설레고 마치 어머니가 기다리는 고향에 가는 느낌이다.”라고 「산불」에 대한 연출자로서의 감상을 술회한 바 있다. 그만큼 「산불」이라는 연극은 목포 출신 대한민국 대표희곡 작가인 차범석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면에서 연극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산불」에 대한 나름의 의미와 어떤 이는 경외감까지 가지며 그

연극에 참여한다는 것을 모두들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1951년 차범석이 3·1절 기념 행사 일환으로 목포에서 공연했던 「별은 밤마다」(「산불」의 모태) 이후 실로 반세기가 훨씬 더 지난 2015년 목포 사람들에 의해 다시 공연된 것이다. 2015년 12일~13일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연되어진 「산불」 공연은 작가를 포함한 출연진, 제작진 모두 목포 연극인이 중심이 되어 공연되어졌다는 점에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개항 이후 목포에서 연극 활동이 시작된 때부터 최근까지 연극 활동이 이뤄진 것을 간추려 보았다. 이는 사단법인 한국예총 목포·신안지부의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목포지부에 등록된 극단 '선창'의 연극 활동을 주로 기록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극을 표방하고 조직되어 극단 활동했던 몇몇 자생적 극단들의 활동사항은 대개는 몇 년 내 활동이 중단되어 그들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본 지면에는 극히 미미하게 기록되었다. 다만, 2000년 초반 탄생한 극단 '새결'은 지금까지 문화 예술 교육을 표방하고 자체 소극장을 갖추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초 민족극형태의 마당극 극단이 결성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극단 '갯돌'을 들 수 있겠으나 정통연극과 분야가 다른 마당극 형태의 활동 관계로 본 지면에는 신지 못했으며 그의 기록과 그 분야의 정리는 따로 필요할 것 같다.



그림 15 2015년 목포 연극협회와 목포시립극단 합동공연 차범석 작, 강대흠 연출의 「산불」 팸플릿

강대흠 | (사)한국예총 목포연극협회 지부장

제3절 목포 무용계의 흐름과 활동

1. 일제강점기~1950년대 목포 무용계

1) 개관

근대 춤은 크게 전통 예인시대(1902~1920), 무도시대(1921~1925), 신무용시대(1926~1944)로 나뉜다. 이 시기의 춤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은 ‘권번’이라는 곳으로, 조선말까지 기생들을 중심으로 가무를 관장하던 기관인 ‘교방’이 철폐된 뒤에 생겨났다. 교방에 속해있던 기생들이 생계를 위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기업(妓業)을 하기도 하고 예인 단체에 가담해 활동을 하면서 설립된 것이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호남에는 남원,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등에 권번이 있었고 나주에도 유사한 것이 있었다. 다만 기록이 남아있는 권번은 광주권번과 목포권번 정도다. 당시부터 이미 호남지방에서 광주와 함께 목포가 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광주권번은 호남지역 권번 중에서 그나마 다소의 기록이 남아있는 곳으로, 특히 이매방이 바로 이 광주권번 출신이다.

목포권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문헌은 『목포부사(木浦府史)』가 유일하다.

부내에 있는 조선인 예기는 소화 4년(1929) 8월 현재 33명을 헤아리고 일본인의 가정이나 연희 석상에 출입하는 자가 점차 많아져 계속 그 수가 늘어나므로 유지들이 회사 조직인 권번을 창립하기로 논의하여, 소화 5년(1930) 1월 관계 기관의 인가를 얻어 죽동 182번지에 목포 예기 권번을 설립하였다. 권번 기생 수는 앞으로 50명은 될 것으로 관계자는 버르고 있다. 일본인 쪽에는 아직 권번이 없었으나 같은 시기에 예기의 수는 25명이었다.⁰¹⁾

목포 출신 무용가 중에는 이매방이 7살 때(1932) 목포권번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당시 목포권번에는 진도 조도 출신의 이채선, 성산호, 함국향, 이대조(무안), 담양 출신의 진소흥, 고창 흥덕 출신의 김금옥 등이 춤과 소리를 가르쳤다. 이매방은 일제강점기부터 1948년까지 이대조, 박영구, 이창조 등 당대의 예인들로부터 승무, 검무, 살풀이춤 등 전통무용을 사사받았다.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무용을 사사할 수 있었다는 게 주목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01) 목포부, 『목포부사』, 1930, 806쪽.

나라에 대한 민족문화 말살정책이 펼쳐졌으며 따라서 무용계에도 일제로부터의 신무용이 대두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목포권변은 목포의 토상회(土商會)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때방에 따르면 성산호는 특히 승무 실력이 뛰어났고, 진소흥은 살풀이의 여왕이었다. 서울에서 활동할 당시 고종 황제의 부름으로 왕실에서 춤을 추었는데 춤이 어찌나 요염하던지 고종이 달려와 껴안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때방은 당시 진소흥을 양어머니로 섬겼다.

이후 시대는 해방 전후로 넘어가게 되나 안타깝게도 이 때 호남지역 무용계의 활동은 미미하다. 그나마 광주를 중심으로 일부 활동이 이어졌으며, 이 시기 목포 무용계의 활동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일제강점기 시절의 무용인들이 그나마 개인적인 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의 장르 구분이 없이 승무, 검무, 살풀이춤이라는 이름으로 각 무용 분야가 혼용되었던 시기이다.

6·25 전쟁으로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에도 여전히 광주지역을 위주로 무용계 활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목포 출신 무용가들이 드디어 이름을 알리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 시기에 활발히 활동했던 목포 출신 무용가로는 오희근(1924~2009), 이때방(1926~2015), 최진열(1926~2012) 등을 꼽을 수 있다. 오희근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목포사범, 순천사범, 광주사범, 광주여고 등 호남 지역 방방곡곡에 있는 학교들에서 무용을 지도했으며, 이 때 창작무용 「기계」, 「개척」, 「전진」 등을 안무 지도하여 이화여대 콩쿠르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에게 무용을 전수 받아 이후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박금자다. 박금자는 이후 광주의 무용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처럼 오희근은 이후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을 다수 배출했다.

이때방은 1941년 목포에서 열린 ‘명인명창대회’에서 「승무」공연으로 첫 데뷔를 시작해 권변에서 춤 지도와 공연, 임춘앵 여성국악단 무용 지도, 대구에서 군예대 활동, 군산에 무용 연구소 개설 등의 활동을 거쳐 1953년 광주에서 문학생들과 첫 발표회를 가졌다.



그림 1 42세의 이때방 그림 2 6·25 전쟁 후 광주에서 이때방의 초기 「삼고무」
 자료: 이병욱·김영란, 『국무 우봉 이때방 화보집』, 우봉이때방전통춤보존회, 2011.

당시는 6·25전쟁기였지만 전쟁에 지친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군예대를 조직해 공연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발판이 되어 1955년 ‘이매방 무용발표회’를 광주극장에서 하였다. 1957년 ‘이매방 승무발표회’를 부산 대영극장에서, 1959년 ‘이매방 무용발표회’를 원각사 등에서 갖는 등 목포를 비롯한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최진열 역시 무용 연구, 교육 및 안무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그림 3 일제강점기~1950년대 활동한 대표 무용인.
왼쪽부터 오희근, 최진열.

최진열은 바로 이곳, 목포에서 1953년 무용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1957년 목포극장에서 첫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또한 1957년 목포에 무용협회가 설립되어 초대지부장으로 최진열이 추대되었으며 25년간 목포무용협회장을 역임하였다. 최진열 역시 오희근과 마찬가지로 무용교육에 크게 힘썼고, 특히 그의 대표적인 제자들인 전충자, 최청자, 정영례 등은 현재도 목포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다.

아울러 후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된 홍정희는 이 시기에 초등학교생으로 무용을 시작하여 목포여자중학교 무용교사 정춘혜(일본 다카라즈카 예술학교)에게 본격적으로 무용 지도를 받았다. 이것으로 보아 목포지역 일선 학교에서 무용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었고 정식으로 무용 교사가 있어 학생들에게 무용이 지도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홍정희는 1953년 이화여자대학교 최우수 장학생으로 무용과에 입학하여 박외선에게 사사했으며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우수졸업생으로 특출한 두뇌와 춤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2. 1960~1970년대 목포 무용계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목포를 비롯해 광주와 호남지방의 무용 예술이 전반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한 시기다. 이 시기 무용 발전에 가장 큰 도화선이 된 계기는, 바로 1960년 전남일보(현,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였다. 호남예술제는 1960년 중고등부 대회를 처음 발족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1965년 초등부를 신설하면서 전국 대회로 성장하였다. 호남지역 최대의 예술제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예술제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호남지역 문화 예술인을 육성하고 그들이 활짝 꽃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데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용 부문은 전국 그 어느 대회보다도 우수한 무용인들을 배출해 그들이 국내외 무용인들의 주역으로서 활동 중이다. 특히 1966년에는 지금까지도 목포 무용인의 대표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례(1951~)가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호남예술제는 지역 무용계에 건전한 경쟁 심리를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호남지역에 무용연구소와 무용학원들이 잇따라 설립됐다.

이와 함께 목포 무용협회 무용대회가 1960년에 제1회를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이 지역에서 무용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나 무용인이 각기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목포에서 확산되었고, 해마다 무용을 지도하거나 안무한 무용인들이 작품을 출전하여 기량을 견주는 기회가 되었으며 저변 확대에 커다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용 교육기관이 등장한 것이다. 호남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현대적인 무용학원은 이경자가 개원한 무용연구소다. 이경자의 무용연구소는 1948년 광주에서 가장 먼저 개설됐으며, 이어 1963년 목포에도 개설됐다. 이경자의 연구소를 필두로 호남지역에 사설 무용 교육기관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결과적으로 이는 목포 무용인들의 실력과 작품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호남의 무용가들은 1963년 오희근을 회장으로 하는 전남무용협회를 결성했다. 하지만 그 활동은 다소 미미했다. 오희근은 이 지방 최초로 현대창작무용을 연구, 지도했으며 초대 전남무용협회장과 전남검도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목포대 교수로 재임하며 호남 춤 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특히 조택원에게 한국 고전무용을 사사했고, 조선 도전 무용연구소, 함기봉 신흥무용단 등에서 한국 고전무용 및 서양발레와 현대무용을 공부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개척」, 「지하실」, 「기계」, 「적진」 등이 있으며 제자로는 박금자, 박은하 등이 있다.

목포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던 최진열은 목여고 교사로 재직 시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용단을 조직하여 방과 후 한국무용, 현대무용을 기초부터 지도하였다. 「견우직녀」, 「흥부전」, 「심청전」 등을 창작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 전충자, 김우숙, 황국월, 이옥희, 이순희 외 4명이 출연하여 오거리의 옛 평화극장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을 비롯하여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당시 많은 학생들이 무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0년에는 최진열이 제자들을 이화여대 주최 ‘제6회 전국여자중·고등학생 무용콩쿨’에 참여하게 하여 안무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며, ‘제7회 전국여자중·고등학생 무용콩쿨’에서 안무공로 및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1960년 ‘제2회 최진열 무용발표회’와 1961년 ‘제3회 최진열 무용발표회’, 1963년 ‘제4회 최진열 무용발표회’ 등 꾸준한 제자양성과 공연활동을 이어갔다.

1971년 전남무용협회는 박금자를 회장으로 하여 재출범했으며 명칭은 전라남도 무용협회였지만, 회원들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대부분이었다. (사)한국무용협회 산하 지회가 아닌 전남예술인총연합회(전남예총)의 산하 단체로만 활동을 했다. 재출범을 기점으로 전남무용협회의 활동은 활발해졌으며 전라남도 무용협회가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6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무용협회 전라남도지회와 광주직할시지회가 동

등한 위치로 나뉘어졌다. 무용협회 전라남도지회는 광주직할시지회가 분리되자 광주를 제외한 화순, 담양, 나주, 장성 등지의 회원을 영입해 활동을 계속해나갔다. 이때까지는 이상준이 2개 협회의 지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던 중 1992년 ‘춤의 해’를 앞두고 한국무용협회 광주직할시지회와 광주무용협회가 통합되고, 이어 이상준이 1993년 전충자 전남지회장에게 운영권을 넘기게 됨으로써 무용협회 전라남도지회는 광주를 제외한 온전한 나머지 전라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무용협회로써 목포, 여수, 순천 등에 지부를 갖추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무용협회 전남도지회는 전충자(1994~1999) 지회장에 이어 정영례(2000~2007), 이운천(2008~2015) 아래 목포시(지부장: 이숙진), 여수시(지부장: 장미영), 순천시(지부장: 남희주) 세 개의 무용협회가 각 지역에서 무용협회를 이끌며 활동 중이다.

3. 1980년대 목포 무용계

1970년대까지 전남무용협회의 목포지회로써 운영돼 온 목포무용협회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초대 협회지부장이었던 최진열 이후, 1981년 전충자가 제2대 지부장을 맡게 됐다. 전충자는 전남 목포 출신의 무용 교육자이며 세종대학 체육과(무용)를 졸업하고 목포여중 교사를 시작으로 목포여고 교사, 목포대학교 강사 등 무용 교육에 한평생을 바쳐왔으며 한국무용협회 전남지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최진열의 지도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화여대 콩쿠르에서 한국무용 독무 1등을 차지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언제나 교단에 몸담아 오면서 정영례, 김화례 등을 육성했다. 현재는 예총 목포지부 고문 및 전남 예술고등학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포무용협회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활동했으며 각기 무용 학원과 연구소를 설립하여 무용 활동을 이어갔다. 정영례무용학원, 박옥주무용학원, 정희무용학원, 박수경무용학원, 시립국악원 등에서 무용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무용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일선 학교나 개인차원에서도 무용 교육이 이루어졌다. 정영례는 서울 국립무용단 등에서 활동을 펼치다가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 전충자의 권유로 무용학원을 설립하였다. 옥주민속무용학원은 이 무렵 ‘교도소 위문공연’, ‘노인 위안공연’ 등 찾아가는 공연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아울러 목포예술제에 여러 무용학원에서 제자들을 지도하여 경연에 참여시킴으로서 무용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여러 분야의 작품들이 안무되어 목포 무용의 다양한 발전에 대한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전공자들도 여러 분야에서 배출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는 안무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목포 무용의 저변확대의 증흥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시기 목포 무용계의 가장 주목할만한 움직임은 1980년 목포시립무용단이 창단한 일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정영례는 잠시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 학원을 운영하던 중 다시 상경하려 했지만 성공적인 문하생 발표회를 하며 시립무용단 창단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에 목포시 자문위원이던 조효석이 조언을 해 주었고, 이병내 목포시장이 무용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창단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정영례(1980~2006)를 1대 안무자로 목포시립무용단은 전국에서 6번째로 창설된 시립 무용단이 되었다.

정영례 초대단장은 연습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단된 시립무용단을 목포시청 및 노동회관 등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시멘트 바닥에서 연습을 하는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며 무용단을 이끌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까지의 전통무용과 민속무용 위주의 춤 흐름을 극 중심의 스토리가 있는 무용극으로, 더 나아가 연출적인 요소가 내포된 창작무용으로 발전시켰고, 그 동안 소품으로 주어졌던 민속춤의 형태가 다양한 작품 형태로 확대되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목포 춤판을 주도하였다. 이후 2대 김효분(2007~2009), 3대 정란(2009~2015), 4대 박수경(2015~현재) 상임안무자가 활동 중이다.

목포시립무용단의 캐치프레이즈이자 활동 목표는 바로 ‘한국 춤의 대중화, 명품화, 세계화’이다. 일반 시민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 춤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알리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내놓는 작품으로 한국 춤의 작품성을 높이며, 이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포시립무용단의 주요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예향 목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 개발하고 지역무용예술의 발전과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의 계승 및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다소 지역적으로 산발해 있었던 목포 전통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러한 전통춤을 보존·계승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해나가는 것이 목포시립무용단의 비전이다. 이를 증명하듯 목포시립무용단은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의 공연과 함께 각종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목포시립무용단은 ‘목포 브랜드 찾기’, ‘찾아가는 예술 공연’, ‘영·호남 춤 교류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활동 구역을 지역에만 한정 짓지 않고, 일본(1985·2011), 중국(2008·2012) 등에서도 공연해 세계적으로도 목포 무용의 위상을 보여준 바 있다.

대표 작품으로는 정영례 안무자의 「땅으로 불」, 「아리랑의 혼」, 김효분 안무자의 「목포아리랑」, 「어미의 바다」, 정란 안무자의 「학도청람」, 「풍류녀 허난설헌」, 박수경 안무자의 「은빛향해」, 「푸른 빛의 웅비」 등이 있다. 대체로 목포 고유의 멋과 한을 살리거나 페미니즘적인 정서를 가진 작품이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목포시립무용단은 작품성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1989년 제1회 전국시

립무용단무용제(서울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한 「아다다」가 무대에서 찬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목포 지역사회에의 기여 측면에서도 활약하며 지난 1998년 목포 결식아동 돕기 자선 공연을 통해 단 1회 공연으로도 4천 5백만 원을 모아 1년간 목포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게다가 목포라는 좁은 지역에 갇혀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지역 교류를 위해 1999년~2004년 영·호남 교류 무용페스티벌을 개최해 부산, 광주, 대구, 마산, 창원의 시립무용단과 교류하기도 했고, 2002년에는 서울공연예술제 우수레퍼토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목포시립무용단은 지역무용단의 한계를 극복,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무용단으로 거듭났다.

또한 지역에 시립무용단이라는 직업무용단이 생겨남으로써 예술이 개인 활동이 아닌 프로단체로서의 존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타 지역의 무용학과를 졸업한 지역 출신, 또는 타 지역 무용인들이 목포라는 지역에 유입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1 1980년대 목포시립무용단 활동 내용

연도	활동내용	비고
1980(창단)	· 제 11회 남도문화제 특별출연	광주남도예술회관
1981	· 목포시립무용단 창단공연 및 제10회 전국소년체전 경축 공연 - 정영례 안무 「바다의 애환」	목포극장
1982	· 제2회 정기공연	시민회관
1984	· 제4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간이역의 군상」	시민회관
1985	· 제5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타버린 세월」 · 일본 초청 순회공연 (벳부시 오오가와, 야나가와, 오사카)	시민회관
1986	· 제6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아다다」 · 광주직할시 승격 축하 초청공연 - 정영례 안무 「아다다」	시민회관 남도예술회관
1987	· 제7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천상의 세계」	시민회관
1988	· 제8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터」	시민회관
1989	· 제9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공쥐팔쥐」 · 전국 시립무용단 무용제 참가 - 정영례 안무 「아다다」	시민회관 중앙국립극장 대극장
1990	· 전국 시립무용단 송년 순회공연 - 정영례 안무 「상」 · 제10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젯빛하늘」, 「심상」, 「장고춤」, 「공쥐팔쥐」	(광주, 서울, 인천) MBC 공개홀

자료: 목포시립무용단 제공.

4. 1990년대 목포 무용계

1991년까지 목포무용협회 지부장을 역임했던 전충자 지부장이 퇴임을 하고 제3대 지부장으로 정영례(1992~1999)가 맡게 되었다. 1992년부터 ‘춤의 해’ 일환으로 제1회 전국무용제가 처음으로 개

최되어 전남에서도 전국무용제의 전남대표팀을 선발하는 전남무용제가 개최되었다. 정영례는 제2회 전국무용제에 ‘정영례무용단’으로 출전을 하여 「땅으로 불」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 하였고 안무상, 개인상 등을 수상하며 목포 무용계의 큰 획을 그었다.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된 전남 무용제와 전국무용제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2 1992~2000년 전남무용제 및 전국무용제 참가단체 현황

연도	전남무용제	전국무용제	수상실적
1992	제1회 정영례무용단	제1회 정영례무용단(부산)	
1993	제2회 정영례무용단	제2회 정영례무용단(대전)	대상 작품상 안무상 개인상
1994	제3회 오근영무용단	제3회 오근영무용단(광주)	
1995	제4회 목포무용단	제4회 목포무용단	
1996	제5회 양미란 목포한국무용단	제5회 양미란 목포한국무용단(제주)	은상 연기상
1997	제6회 양미란 목포한국무용단	제6회 양미란 목포한국무용단(청주)	
1998	제7회 양미란 목포한국무용단		
1999	제8회 양미란 목포한국무용단		
2000	제9회 양미란 목포한국무용단	제9회 양미란 목포한국무용단(창원)	

자료: 목포무용협회 제공.

1990년대 목포무용협회는 지부장 정영례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창작활동과 제자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협회 주최로 열리는 목포예술제에 다양한 작품들을 출전하여 목포 무용의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미래 목포 무용을 빛낼 인재들을 양성하여 이들이 국립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 각 대학 무용학과 등에 진출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목포를 빛내고 있다.

개인 활동으로는 학원이나 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제자들을 양성해 온 정영례, 박옥주, 정지윤, 박수경 등이 있다. 전충자, 모방자, 정경좌, 이은옥, 정지윤 등이 학교 현장에서 무용 교사로서 재직하며 무용 교육에 헌신하였다.

목포시립무용단은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와 정기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민들을 위한 무용공연과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지역무용의 발전을 이끌었다. 1990년대 목포시립무용단의 대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3 1990년대 목포시립무용단 활동 내용

연도	내용	비고
1991	· 전국 시립무용단 무용제 참가 - 정영례 안무 「미로」 · 11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미로」 · 전국시립무용단 송년 무용제 - 정영례 안무 「상」	국립극장대극장 시민회관 부산, 서울, 인천, 대전
1992	· 제12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이 땅의 별빛으로 남아」 · '춤의 해' 여름 야외이벤트 목포공연 - 정영례 안무 「동방의 빛」, 「미로」 · 제13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도라지, 그 산천」 · '춤의 해' 폐막제 광주지역 축전 - 정영례 안무 「도라지, 그 산천」	시민회관 시민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1993	· 제14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땅으로 불」	시민회관
1994	· 제15회 정기공연 - 정영례 안무 「땅으로 불」 · 제16회 서울무용제 초청공연· 정영례 안무 「땅으로 불」 (제 2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안무상 수상작)	시민회관 서울문화회관 대극장
1995	· 기독교 광주방송 개국 34주년 기념 CBS 무등무용 대축전 「외다리 선 날개짓」 · 전국시립무용제 참가공연 「도시의 밤」	광주 남도예술회관 국립중앙극장 소극장
1996	· 제16회 정기공연 「도시고양이」, 「보이지 않는 섬」	송림문화회관
1997	·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축하공연 「달빛아래 비친 과수원」, 「북의 소리」	광주 중외공원
1998	· 결식아동 돕기 자선공연 - 정영례 안무 「날개」, 「북의 소리」, 「상·일곱」, 「황혼의 허수아비」	문화예술회관
1999	· 영·호남 교류 축하무용공연 「황혼의 허수아비」	부산문화예술회관
2000	·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및 영·호남 교류초청공연	목포문화예술회관

자료: 목포시립무용단 제공.



그림 4 1993년 제2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작 「땅으로 불」 (정영례 안무 및 출연)

5. 2000년대 목포 무용계

1999년까지 목포무용협회 지부장을 역임했던 정영례 지부장이 퇴임을 하고 제4대 지부장으로 박옥주(2000~2003)가 맡게 되었다. 박옥주는 옥주민속무용학원을 운영하며 지역무용 발전과 제자 양

성을 해 왔으며 제2006-57호 「징춤」 명인으로 선정되었다.

2004년부터는 제5대 목포무용협회 지부장으로 정지윤(2004~2007)이 취임하였다. 정지윤&이수 무용단이 창단되어 '제1회 해설이 있는 무용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무용에 대한 이해와 관객에게 다가가는 야외공연으로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제6대 목포무용협회 지부장으로 박효정(2008~2011)이 지부를 이끌며 목포무용협회 무용경연대회와 협회 주최 '찾아가는 공연'들을 통해 지역민들과 무용으로 소통하는 기회들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목포시립무용단은 꾸준한 작품발표와 매년 정기공연 등으로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민들의 무용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에 큰 역할을 해왔다. 창단부터 2006년까지 시립무용단을 이끌어 온 정영례 안무자가 명예로운 퇴임을 하고 제2대 안무자로 이 지역 출신이 아닌 김효분이 내정되어 지역 무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외에도 양미란무용단과 박지영무용단, 목포시립국악원의 전통무용 등이 고르게 공연이 되어 지역 무용공연문화에 많은 기회를 열었다.

승무와 살풀이춤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우봉이매방춤전수관이 목포문화예술회관 내에 2005년 7월 8일 개관하여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보존하고 전통의 맥을 이으려는 의지가 실현이 되었으며, 이매방의 춤을 전수하고 연수를 받으려는 전국 무용인들이 목포를 찾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12~13일 '제1회 우봉 이매방 전통춤경연대회'가 목포문화예술회관공연장에서 열려 전국의 많은 우수한 전통춤꾼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는 장이 되었고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어 이매방의 전통춤이 우리 지역에서 맥을 잇게 되었다.

2001년에는 정지윤&이수무용단이 새롭게 창단이 되었으며 창단자 정지윤 단장이 현재까지 단장을 맡아 무용단을 이끌어오고 있다. 목포 출신의 무용가이자 무용교육자인 정지윤은 1995년부터 목포성신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목포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안무자, 목포과학대학, 성신간호대학(현 목포가톨릭대학교) 강사 등을 역임했다. 대표작은 「바라밀」 등이 있으며 해외 공연과 다양한 국내 활동, 소외된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무용단이다. 이수무용단은 우리 것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21세기 무용예술을 대중화시키고 청소년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무용 예술의 대중화와 무용 보급, 시민 문화 향수의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목포무용협회는 4대 지부장으로 박옥주(2000~2003), 5대 지부장 정지윤(2004~2007), 6대 지부장 박효정(2008~2011)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창작 활동과 제자 양성이 계속되었으며 협회 주최로 열리는 목포예술제무용경연대회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개최되었다. 또한 매년 전남무용제가 개최되어 2001~2010년 제10회~제19회까지 개최되었고 목포무용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2001~2010년 전남무용제와 전국무용제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4 2001~2010년 전남무용제 및 전국무용제 참가단체 현황

연도	전남무용제	전국무용제
2001	제10회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	
2002	제11회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	
2003	제12회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	제12회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인천)
2004	제13회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	
2005	제14회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	
2006	제15회 박지영무용단,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	제15회 박지영무용단(포항)
2007	제16회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	
2008	제17회 목포이수무용단	
2009	제18회 목포이수무용단,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	제18회 정지윤&이수무용단(김해)
2010	제19회 정지윤&이수무용단	

자료: 목포무용협회 제공.

전남무용제 참가 단체를 살펴보면 양미란한국무용단의 전남무용제 참가가 주를 이루었고, 2006년 제15회 박지영무용단 참가와 2008년 이수무용단의 참가로 창작 작품만이 참가할 수 있는 전남무용제와 전국무용제에 점차적으로 회원들의 창작 작품 활동과 참가 의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9월 ‘중요무형문화재 우봉 이매방 전통무용 대공연’이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2005년 ‘우봉 이매방춤 전수관 개관 기념공연’이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연되었다.

양미란무용단은 매년 전남무용제에 창작 작품을 안무하고 출전하여 지역 무용인의 창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무용제 초청공연(지역대표), 회원들로 구성된 무용협회 주최 공연에도 다양한 작품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지윤&이수무용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2004년에 최초로 기획되어 현재 13회째 진행하고 있는 ‘해설이 있는 무용 공연’이다. 목포 시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무용이라는 장르에 해설을 곁들여 일반 관객들도 쉽고 즐겁게 무용 공연을 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수무용단은 무용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관객의 입장에서 찾아오는 무대가 아닌 직접 ‘찾아가는 무대’로 타지역과의 활발한 무용 교류를 통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구성·기획하여 공연하였다. 찾아가는 무대공연을 위해 시도한 야외무대 공연은 그동안의 실내 공연 위주에서 무용단이 관객과의 거리를 좁혀 관객 친화적인 공연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목포시립무용단은 제1대 정영례 안무자와 제2대 김효분, 제3대 정란의 안무 작품을 시민들에게 정기공연과 교류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기회를 가졌으며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2000년대 목포시립무용단 활동 연혁 내용

연도	활동내용	비고
2001	· 제3회 영·호남 춤 교류전 - 정영례 안무 「흔적」 · 영·호남 무용페스티벌 - 「동방의 빛」, 「이 땅에 들꽃 되어」	부산문화예술회관 목포문화예술회관
2002	·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및 대구, 광주, 목포시립무용단 합동공연	목포문화예술회관
2003	· 전국시립무용단 합동교류전 - 정영례 안무 「상 - 여덟」, 「빛」 ·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및 영·호남시립무용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목포문화예술회관
2004	·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및 영·호남 시립무용단 합동공연	목포문화예술회관
2005	· 우봉 이매방 전수관 개관기념 축하공연 - 정영례 안무 「회 - (나무의 재)」	
2006	· 제409주년 해남 명량대첩제 공연 - 정영례 안무 「태평무」, 「동방의 빛」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2007	· 목포시립무용단 전남·경기 춤 교류전 - 김효분 안무 「부채춤, 진도북춤, 딸림」 · 목포·익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 김효분 안무 「춤의 만남」	익산 솔리문화예술회관
2008	· 제25회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 김효분 안무 「우봉 이매방과 함께 하는 목포아리랑 대감놀이」, 「살풀이춤」, 「흥춤」, 「입춤」, 「장검무」, 「어미의 바다」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2009	· 제23회 한국무용제전 - 정란 안무 「비 너울 승천 - 학도청람전상서 -」 · 제26회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 정란 안무 「학도청람」 ·故김대중 前대통령 추모음악회공연 - 정란 안무 「목련꽃 한아름 바치오니」	국립국악원 예약당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2010	· 목포시 일본 벳부시 자매결연 25주년 문화교류회 축하공연 - 정란 안무 「태평성대 기원무」 · 제28회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 정란 안무 「풍류녀 허난설헌, 정강춤」(최승희류, 김해춘 창작)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자료: 목포시립무용단 제공.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목포 무용이 실내공연장이 아닌 야외공연으로까지 확대가 되어 공연문화가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었으며, 회원들이 그룹이 되어 창작 작품을 안무하고 공연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만들어졌다. 공연 장소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목포시민문화회관 다목적홀의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던 차에 1997년 7월 개관한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공연 기회를 갖게 되어 공연 환경이 개선되었다. 2004년 5월 3일 새롭게 개관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는 기존의 목포문화예술회관만으로는 부족했던 공연 장소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고 목포 무용인들이 마음껏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2008년 9월에는 이곳에서 '제17회 전국 무용제'가 열려 목포 역시 무용 활동과 그 여건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음을 전국 무용계에 각인시키기도 했다.

6. 2010년대 목포 무용계

2010년대 들어 목포무용협회는 다각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 제6대 지부장인 박효정(2008~2011)은 지역의 여러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용 공연을 펼쳐 소외되고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이

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제7대 지부장으로 이숙진(2012~현재)이 취임을 하면서 무용협회는 단순한 공연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각종 이벤트 기획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11년까지 지역을 범위로 진행했던 목포예술제 무용경연대회를 전국무용경연대회로 확대시켜 타 지역의 무용인들과 학생들이 목포를 찾아 무용경연에 참가하는 기회를 만들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정지윤 목포무용협회 이사가 2015년 전남무용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되어 전남무용협회가 여수에서 다시 목포로 이전하였다.

목포시립무용단은 기존 공연형태에서 발전하여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공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등 공연 횟수도 확대되어 시립단체로서 문화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박수경 예술감독이 부임하였다.

목포무용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목포무용협회 전국무용경연대회를 2015년까지 55회째를 개최하며 지역 무용 발전과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3년에는 ‘친구야, 나는 네가 좋아!’라는 사업명으로 ‘움직임으로 소통하는 또래 친구들’을 운영하여 무용을 이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정서와 감수성, 신체의 바른 성장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였다. 2014년에는 ‘뛰go, 놀go, 신나go’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목포대학교에서 운영하였다.

또한 매년 행해지는 전남무용제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양미란 무용단이 전남대표로 ‘전국무용제’에 출전하여 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무용제 참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2011~2015년 전남무용제 및 전국무용제 참가단체 현황

연도	전남무용제	전국무용제
2011	제20회 정지윤&이수무용단	
2012	제21회 양미란무용단	
2013	제22회 박재형무용단, 양미란무용단	제12회 양미란무용단(순천) - 은상, 연기상
2014	제23회 양미란무용단(정수연 안무)	
2015	제24회 양미란무용단	

자료: 목포무용협회 제공.

그 외에도 목포무용협회는 「가을이 오는 소리」, 「빛의 나래」, 「목포예술제 전야제」 등 호남권의 수많은 무대에 올라 목포 무용을 선보였으며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전에도 참여하여 목포 무용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전남문화관광재단 주최 야회 문화행사(전대미문,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에도 참여하여 무용협회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지와 활동을 인정받았으며 회원들 다수가 각 교육기관에 예술 강사로 참여하는 등 교육에도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정지윤&이수무용단과 양미란무용단, 정재연무용단, 박지영무용단 등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전체적 인구 감소로 인하여 무용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반면 무용학원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우봉이매방춤전수관, 박옥주무용학원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허연강, 양미란무용학원, 나용희무용학원, 시립국악원, 그랑무용학원 등이 무용인구 저변확대와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11년 목포시립무용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2010년대 목포시립무용단 활동 내용

연도	내용	비고
2011	· 제29회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초청공연 - 정란 안무 「여명의 빛」 외 · 일본 벳부시 초청공연 - 정란 안무 「목포학춤」 외 5작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천마공연장 일본 벳부시 비콘플라자홀
2012	· 국립남도국악원 초청공연 - 정란 안무 「여명의 빛 - 태평무」 외 5작품 · 제30회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시회 - 두 번째 이야기」 정란 안무 「여명의 산하 - 부채춤 외 5작품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2013	· 제31회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정란 안무 「어부사시사」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공연 ·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개관 기념공연 · 목포시립예술단합동 창작공연 「평화의 사도 그 찬란한 귀향」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2014	· 미 함정 LAKE ERIE 목포시방문환영만찬공연 - 정란 안무 「여명의 산하 - 부채춤, 쟁강춤 -」 · 제33회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목포의 여정」 - 정란 안무 「입춤」 외	신안비치호텔10층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2015	·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문화공연 - 박수경 안무 「장한가」, 「장고춤」 외 · 2015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 박수경 안무 「흥춤」 외	목포국제체육구센터 야외무대 로테오 광장

자료: 목포시립무용단 제공.



그림 5 목포시립무용단의 공연 장면(목포시립무용단 제공)

7. 목포 무용의 새로운 도약

1987년 6·29 선언으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무용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씻김과 해원」이라는 이름의 작품이 광주와 목포를 포함한 호남 무용계 전반에서 쏟아져 나왔고,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작품들도 다수 발표됐다. 비로소 무용 작품의 소재 및 메시지에 안무자의 개성과 신념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작품 내적으로는 공연예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1990년대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많은 성과를 낸 목포무용협회와 목포시립무용단 등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회교육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무용학원 역시 앞다투어 개설됐다. 이는 생활무용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으로 목포에 깊게 뿌리내려 온 한국무용과 함께 스포츠댄스, 재즈, 벨리댄스 등이 전국 각 대학 무용과에 사회무용 전공으로 추가되어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에 와서는 교육과정에서도 직접 몸을 움직이는 체험형 학습이 중시되면서 무용 역시 체육 교육의 굳건한 분야로서 각 학교 및 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되고 있다. 전남무용협회 목포지부 등 목포지역 무용단체들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각종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무용 교육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는 중이다.

한편, 2004년 개관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는 기존의 목포문화예술회관만으로는 부족했던 공연 장소 인프라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되었으며, 2008년 9월에는 이곳에서 제17회 전국무용제가 열려 목포 역시 무용 활동과 그 여건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음을 전국 무용계에 각인시키기도 했다.

목포 무용의 특성은 권번에서 추어진 승무, 검무, 살풀이춤과 일본에서 건너 온 신무용, 해방 전후 추어진 창작무용 등을 거쳐 이매방의 전통춤인 승무와 살풀이춤, 그리고 전통춤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작하여 표현한 정영례의 창작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매방의 승무와 살풀이춤은 각각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무용인들이 전승하고 있으며 해외 무대에서도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정영례의 「아리랑의 혼」, 「산조」, 「땅으로 불」은 전통춤에 기반을 둔 동시대적 창작을 기조로 세련된 한국 창작무용으로, 「아리랑의 혼」은 서울무용제 우수 레퍼토리로 선정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공연을 통해 목포 무용의 특징과 의미를 빛냈다. 또한 박병천에게 사사한 「진도 씻김굿」을 서울 포스트극장 「내일을 여는 춤」의 일환으로 공연하며 지역에서 발굴한 굿 형식의 전통춤을 작품 주제로 형상화 해 창작춤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 무용은 현재 목포예총 산하 한국무용협회 목포지부에 소속된 순수예술 전공 무용인들이 주로

무대 예술작품과 후진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지향성이 다른 민예충은 단원 대부분이 민예충에 소속된 갯돌 단원 등인데, 마당극이라 일컫는 민속놀이(춤)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원들과 농악단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남도문화제(전남민속축제)’를 매년 목포시 대표로 참가하여 「고하도 탕전바위」, 「동명동 말 박은 소리」 등 전통춤의 성격을 띤 마당극 형태로 표현하여 발전해 가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

목포 무용은 무용을 통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에 기여하고자 하여 목포시립무용단은 1990년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체장애자 돕기’, ‘결식아동 돕기’ 공연으로 의족을 구입하여 2차례 전달하였으며 정영례 안무자는 안무, 출연, 홍보 등 1인 다역을 담당하며 공연 수익금 4천5백만 원을 모금하여 유달초등학교 외 4개 교에 결식아동 돕기 기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는 목포의 기업과 경영인, 작은 고사리 손까지 동참한 감동과 뜻 깊은 순간이기도 했다. 또한 박옥주의 지속적인 ‘교도소 자선 위문 공연’과 정지윤&이수무용단의 ‘해설이 있는 무용공연’, 무용협회 주최 ‘찾아가는 무용공연’ 등이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화둥둥 예술놀이터’, ‘춤바람, 신바람’, ‘움직임으로 소통하는 또래 친구들’, ‘뛰go, 놀go, 신나go’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제공하여 감수성 향상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아동, 청소년을 위해 방과 후 시간이나 정규수업에서 무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무용을 경제성이나 기능면에서 일부의 사람들만이 하는 예술이 아닌 대중적 예술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목포 무용인들은 끊임없는 자기 연마와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타 예술 장르와의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예술무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예술로써의 가치와 수준 있는 작품으로 감동을 주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용인들 간에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좋은 작품 제작을 위한 콘텐츠개발과 동작, 음악, 구성 등을 공유하여 목포 무용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화에 노력해야겠다. 무용인들이 서로 공생하고 타인의 작품과 활동에 대한 존중과 돈독한 우애가 지금처럼 지속되어질 때 목포 무용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다.

정영례 | (사)한국무용협회 전남지부 상임고문

이숙진 | (사)한국무용협회 목포지부장

제4절 목포 한국음악(국악)의 흐름

1. 개요

목포는 판소리와 춤의 고향이라 할 만큼 국내의 많은 명인 명창들이 다녀가거나 거주했던 곳이다.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낸 곳이다. 하지만 목포의 국악사를 논할 때 양악과의 접변을 주목하지 않고는 그 발전사를 얘기하기 어렵다. 목포라는 공간의 태생적 특징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 장에서는 국악을 중심으로 목포 지역의 한국음악사라는 타이틀을 걸어 서술해보고자 한다. 그것이 목포 지역 국악이 양악 및 극장 공간에서 접변하고 흥망성쇠 했던 맥락을 가장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목포시 개항 이전에는 수군만호가 있었고 주민은 400여 호에 불과했다. 이때의 국악은 사실상 인근 도서 지역의 국악과 구분할 수 없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1897년 개항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노동 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항구로의 면모도 갖춰지고 판소리를 비롯한 노래꾼들도 모여들게 되었다. 개항한 지 불과 몇 년 후에 목포는 해산물의 집산항으로 변했다. 수많은 운반선들이 드나들었다. 호남선 철도 개통으로 물물교역도 날로 늘어났다. 뜻있는 인사들 70여인이 모여서 '사상회(士商會)'란 조직을 만들었다. 이후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한국인들만의 모임이었다. 이들이 해산물 교역의 상권을 갖게 되었다. 그 산하에 집산하는 물산을 위탁 판매하는 '문옥조합(問屋組合)'이 생겼다. 쌀, 면화, 누에고치 등 삼백(세 가지의 흰 물품)의 항구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굴지의 무역 항구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 조건은 무계 국악인들의 진출에 우호적이었다. 특히 포구와 관련되어 고기잡이 어선 등은 굿 등의 무속음악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었다. 목포만의 특징적인 무속환경이 조성되었다기보다는 인근 도서 지역 주민들의 풍습이 그대로 목포로 이전되거나 수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설날에는 걸굿놀이를 각 단체에서 조직해서 가세가 좋은 집을 찾아다니며 풍악을 올렸다. 이른바 마당밧이다. 한 해의 재액과 축원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목포국악원이 생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환경이 목포의 국악사를 형성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목포 국악의 배경

일단 목포의 국악사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범박하게 민속예술공연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산조와 판소리, 창극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전통음악 전승의 토대가 되었던 이 지역의 무속음악,

마을의례 및 공동체 놀이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들 음악은 대체로 무계(巫係)에 의해 전승되었거나 적어도 무계 관련 음악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들의 능집단인 신청(재인청)은 시대를 거쳐 오면서 무속음악의 예술화 작업을 도모하게 된다. 무속음악의 재창조 작업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갖가지 국악 관련 협회나 단체들로 발전하거나 습합되었다. 진도 지역의 경우, 이런 경험들이 국립남도국악원을 설립하는 토대로 작용하게 된다. 기악 및 창극 발전의 여러 가지 단서들로는 가야금산조 창시자로 불리는 영암의 김창조 및 그 예하 명인들, 대금산조의 창시자로 불리는 진도의 박종기, 창극의 창시자로 불리는 무안의 강용환 등을 들 수 있다. 김창조는 주로 광주에서 활동하였고 박종기, 강용환 등은 서울로 진출하게 되지만 목포국악의 밑거름 역할을 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언급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대금산조의 대표적인 이는 박종기다. 박종기는 조선 말기(1880~1947)에 활동한 대금산조의 명인으로 꼽힌다.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에 참여하여 많은 연주활동을 하였다. 이후 강백천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각 대금산조를 짰으며, 대금산조의 시조로 불린다. 판소리는 진도의 김득수, 담양 사람 신치선 등을 들 수 있다. 완도군의 판소리 명창으로는 임방울, 제 소리를 잘했던 장흥 출신의 임완규(1898년생), 해남군의 경우 김홍봉이 있다. 가야금과 피리에 능했고 판소리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 외 거문고와 피리를 잘했던 천홍표, 창을 잘했던 공경환, 한숙구, 추정남, 김춘학 등이 거론된다. 고법에는 김홍봉, 김흑석, 홍광표 등이 있다. 해남군 북평면 출신 정철호는 판소리 작창과 창에 능할 뿐 아니라, 아쟁산조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다. 영암지역의 경우 박재성을 들 수 있다. 조부는 진도 출신인데, 목포에서 신치선에게 판소리 「흥보가」, 「춘향가」를 배운 바 있다. 김정달은 김보배로부터 삼현육각 및 시나위 음악을 배웠다. 강현복은 보성 출신으로, 공일, 정응민, 목포국악원의 김상용에게 판소리를 배운 사람이다. 신안군에서는 하의도 이흥채 등이 거론된다. 진도 조도 출신의 목포 김순자에게서 판소리를 배워 신안군의 판소리꾼으로 알려져 있는 정도다.

다음으로 거론해볼 수 있는 장르는 창극이다. 판소리를 극화하여 종합 연희물로 재창조한 장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남해 지역의 창극에서 가장 먼저 거론할 사람은 무안의 강용환이다. 창극의 시조로 불릴 만큼 그 역할이 컸다. 1865년 무안에서 출생하여 이날치에게 사사하고, 고종시대에 명성을 떨친 사람이다. 이후 본격적인 창극은 1946년 국악원 산하에 ‘국극사’, ‘국극협회’, ‘조선창극단’, ‘김연수창극단’, ‘임방울과 그 일행’ 등의 5개 창극단체가 조직되면서 확장된 바 있다. 이 당시 박동실(화순 출신)이 단장으로 있던 ‘국극협회’에 진도의 김득수 등이 참여한다. 전통국악공연은 아니지만 산업화 시기에 등장한 무안 일로읍 김시라의 노래극 「품바」도 주목의 상이다. 장기 공연뿐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가히 「품바」의 전성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일로 마을회관을 거쳐 목포에서 그 장을 열었던 만큼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서남해의 풍류음악 그룹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그룹에도 신청 관련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강진의 경우 율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계를 통해 매일 혹은 3일에 한 번씩 풍류를 즐겼다. 이들의 공연과 활동 지역을 종합하여보면 1900년도 이전에는 아예 한양으로 진출되어 나가거나 목포 개항기 이후에는 목포, 광주 등지를 근거지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 문화 접변의 근대적 장소가 목포였다는 점이다. 앞서 거론한 명인 명창들이 목포에서 수학하거나 활동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남해와 영산강 주변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을 이루며 목포로 수렴되었던 근대기의 국악을 포함한 한국음악 및 공연문화예술을 생태적으로 잉태시킨 산실이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민속음악 기반의 서남해 공연예술적 전통이 곧바로 목포로 이입된 것은 아니다. 개항 이후 목포가 처한 근대문화 형성의 맥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극 활동이나 신민요, 가극, 가요 등으로의 전환이나 발전을 도모했던 것들이 이를 말해준다. 좁혀서 얘기한다면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통의 맥을 유지하던 서남해 및 영산강 기반의 전통공연예술은 유달국악원에서 목포국악원으로, 그리고 목포국악협회, 목포무용협회 등으로 확산 전개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악을 포함한 근대기 목포 공연예술의 맥락은 당대의 신문 기사를 통해 인용되거나 분석되어왔다. 이를 가장 잘 정리해둔 것이 『목포개항백년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목포예총에서 보관하고 있는 1950년 말~1970년의 사진자료 및 1955년~1968년의 각종 신문 스크랩북을 통해서도 추적할 수 있다. 강강술래가 실내와 실외에서 다양하게 공연되거나 시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서양음악연주회, 독주회, 독창회, 국악연주회, 춤 발표회, 각종 시가행렬 등의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다.

3. 양악과 접변한 목포 국악의 흐름

목포 국악사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근대기 음악과 접변하면서 공생하거나 부침을 거듭했던 공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포에 처음으로 근대적 공연장이 들어선 것은 1904년 복만동의 목포좌로 기록되어있다. 목포좌는 운영미비로 1908년 없어지고 같은 해 상락동에 상반좌가 설립되었다. 1914년에 증축하여 138평 규모에 이른다. 1929년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문을 닫았다. 상반좌가 폐쇄되기 이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무안동에 활동극 상설극장으로 희락관이 설립되었다가 1926년 화재로 없어지기도 했다. 1927년 희락관 자리에 상설 활동 극장인 평화관이 등장한다. 설립 당시 목포극장과 평화관은 2층 목조 건물이었으며, 목포극장은 183평 규모에 수용정원 510명, 평화관은 86평에 정원 353명이었다.

일제강점기 평화관은 다다미 관람석에 방석을 깔아 손님을 앉혔다. 주로 일본 전통극인 가부키를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길거리 행진도 했다. 국악 공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영화산업도 날로 발전해서 목포에 프로덕션이 탄생하기도 하고 극장이 휴관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연극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목포 상반좌의 소인극을 들 수 있다. 내용으로 음악, 무용, 연극 등이 공연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25년에는 이발업 친목회에서도 소인극을 개최하고, 무안군 임자도 소년들도 마을에서 소인극을 개최하기도 한다. 공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극작가로 활동했던 김우진과 배우 윤심덕의 현해탄 투신기사가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목포 출신인 까닭에 공연계에 미쳤을 파장이 매우 컸을 것이다.

1934년에는 국악을 중심으로 하는 목포예기권회에서 수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극회를 목포극장에서 개최하기도 한다. 1922년 4월에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천도교청년회의 소인극단인 해삼위 연예단의 공연도 있었다. 공연 내용은 음악, 무용, 연극이었으며 러시아춤과 현악 연주도 곁들여졌다. 소인극이란 직업적 연극에 비해 아마추어에 의해 연출, 제작되는 연극을 총칭하는 말이다. 직장연극, 농촌연극, 청년연극, 학생연극, 학교연극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문 극단과는 달리 일반 대중이 창작과 향유의 주체가 되어 소속집단의 기념일이나 목적에 따라 공연하는 형태다. 1910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소인극은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일익을 학생들이 맡게 되면서 구체화되었다.

1920년 봄,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극예술협회’를 조직하고 극운동의 시동을 걸면서부터이고, 1921년부터 구체화되었다. 이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구사상 타파, 신사상 고취, 풍속 개량 등의 주제를 가진 것으로 신파적인 공연물이 부분이었다. 이러한 소인극들은 많은 경우 청년회의 활동비나 지역의 사회교육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흥행적으로 공연되었다. 이 활동들이 국악의 흐름과 접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국악의 침체를 조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컬래버레이션하는 협업의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국악은 양악과 구분되었던 것이 아니다. 음악회나 발표회의 레퍼토리를 주목할 필요가 여기 있다. 목포희성유치원이나 정명여학교는 이러한 음악회 발표장소로 자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5년에는 양동 기독교여자수양회에서도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오페라 장르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 음악회의 목적은 기금모금에 두고 있었으며 기독교 관련 외에는 양악과 국악을 같이 공연하기도 하고, 춤과 음악가극 등이 공연되기도 했다. 국악, 양악이 같이 공연된 예는 목포청년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신구음악회가 대표적일 것이다. 신춘음악회나 스포츠와 함께 한 이벤트도 확인된다. 1926년에는 국악명창회가 열려 춤에서 산조, 민요,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가 공연되기도 했다. 이외에 졸업식이나 학예회가 다수 개최되었고 시민 대상 음악회도 자주 열렸다.

특히 이 당시의 목포 공연예술 중에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가요사 중에서도 그 의미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일본식 노래의 등장이라기보다는 국악의 흐름과 접변하고 충돌하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노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심에 목포라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1920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창가의 양상에 막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전래의 민요가 창가의 영향을 받아 신민요로서 대중가요로 자리하기도 한다. 서양의 재즈와 포크송 등이 국내에 유입되어 대중가요의 다양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종전까지는 창가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어 왔던 모든 가요는 가곡과 동요라는 예술가요와 유행가라고 하는 대중가요로 확연히 구분하게 되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종의 요릿집 공연 상황도 점점해볼 필요가 있다. 예기를 포함한 기생들과 유곽이 목포국악사의 흐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935년 9월 11일 매일신보의 기록을 보면, 유곽의 인구와 이용현황이 보인다. 조선인 예기가 11명, 일본인 예기가 27명 등으로 나온다. 목포가 개항되면서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자 죽동에 유곽이 생겨 흥청거리다가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1913년 사쿠라마치(櫻町, 금화동)로 옮겨졌다. 이른바 ‘향락산업’이라고 불리던 사업들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만호동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1970년에 이르러 경찰에 의해 해체되었다. 목포 권번과 예기조합도 이러한 국악 공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921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목포기생연주회가 목포 권번을 창립하고 일주일간이나 연주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이 소개된다. 목포 권번은 기생들의 기예능력 배양 힘쓰다가, 해방 후에 목포국악원으로 바뀌고 다시 개인소유로 바뀌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국악을 포함한 양악 중심의 음악 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기도 했다. 학교 행사 가운데 음악은 독창, 합창, 기악연주를 비롯해 가극까지 끼어 있었다. 전국학생음악회나 청년회 음악회도 꾸준히 개최되었다. 이러한 학교 활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 1955년 9월 6일에는 목포에 처음으로 음악협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해방을 맞이한 극장은 목포극장과 평화관 두 곳이다. 이들 극장은 6·25전쟁 기간에도 별 피해를 입지 않아 목포의 영화와 연극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두 개의 극장만이 존재하던 목포시에 1950년 들어 생겨난 극장이 남교동의 원진극장이다. 극장은 영화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음악회, 이벤트들이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1960년 목포시는 국극단이 성행하게 된다. 여성국극단과 악극단의 공연은 유명 영화배우를 앞세운 쇼 공연과 마찬가지로 인기를 누렸다. 국극단의 흥행몰이는 1950년부터 일어났다. 부족한 영화 대신 창극과 여성국극단의 공연이 극장 무대를 채웠다고나 할까. 목포시에서 가장 인기를 누렸던 국극단은 ‘임춘앵과 그 일행’, ‘박옥진국극단’, ‘진경여성국극단’ 등이다. ‘임춘앵’이 등장하는 날은 경찰서가 총출동하는 날이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뜻이다.

여성국극을 포함해 협률사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 순회공연에 나섰던 것은 서울의 근대식 극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10년 초 서울의 대표적인 원각사, 광무대, 연흥사, 단성사, 장안사 중 원각사와 단성사, 연흥사는 주로 판소리, 창극을 공연했고, 광무대와 장안사는 주로 전통적인 가무를 공연했다. 물론 다른 것들도 공연하고 영화도 상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판소리, 창극을 많이 공연한 단성사, 연흥사, 원각사가 풍속을 괴란시킨다는 지탄을 많이 받기도 했다. 때마침 친일 재벌 김시현이 운영하던 원각사가 1909년 11월 말 폐지되자 전속 명창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중 주석이던 명창 김창환과 간부로 있었던 송만갑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각각 ‘김창환협률사’와 ‘송만갑협률사’라는 명칭의 창극단을 만들어 1915년경까지 유랑하게 된다. 이 영향을 목포 지역에서 고스란히 받아냈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과 6·25전쟁을 거친 후 1960년 후반과 1970년 창극과 악극이 주요 무대에서 사라진 자리에는 ‘쇼’라는 타이틀의 공연이 대신하게 된다. 쇼 단체 공연은 무대가 넓었던 남일극장에서 자주 열렸다. 목포시를 자주 방문하여 인기를 누렸던 단체는 박종구의 ‘라이언 쇼’가 대표적이었다. 1970년에서 1980년 목포를 자주 찾았던 가수는 역시 남진과 그의 라이벌 나훈아다. 이들의 공연에는 극장이 터져나갈 만큼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 이벤트도 많이 열렸는데, 목포극장과 평화극장, 남일극장에서는 1966년의 ‘미스 목포 선발대회’, 1968년의 ‘목포 예술제’, 1968년의 연극발표회 등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1960년 목포시 소재의 극장들은 영화와 악극, 그리고 쇼 등 대중오락을 경험하는 공간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교양을 갖추고 계몽적인 교육을 받는 공간이기도 했다. 개별 단위의 공연활동도 매우 활성화 되어 있었다. ‘목요음악회’를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 같다.

4. 목포국악원의 시작과 강사 장월중선

이때방이 권번과 기생학교 등의 맥락을 이은 인물이라면 응당 목포국악원에 큰 영향을 끼친 장월중선도 거론해야 한다. 장월중선(1925~1998)은 본명이 장순애다. 본래 곡성군 오곡면 묘천리 출생이다. 전통 예인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가야금, 가야금병창, 거문고, 아쟁, 전통무 등에 두루 뛰어남만능 예인이었다. 조부 장석증은 판소리 명창이자 거문고 명인으로 순릉참봉의 직첩을 받았고, 부친 장도순은 이름난 소리꾼으로 경성구파배우조합의 일원이었다. 큰아버지 장판개는 어전에서 소리하여 혜릉참봉의 직첩을 받은 동편제 명창이고, 고모 장수향도 기악과 무용의 명인이었다. 이러한 예인의 피를 물려받은 장월중선은 일찍부터 재능을 발휘하여 일제강점기부터 임방울 협률사를 비롯하여 국극사, 조선창극단 등 창극단체와 여성국극협회, 임춘앵과 그 일행 등 여성국극단체에서 배우로 출연하는 한편 여러 작품을 작곡하고 안무를 맡아 예술적 기량을 발휘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곳

목포뿐만 아니라 장월중선이 길러낸 제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인물편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목포국악원과의 맥락만을 추려서 정리하기로 한다.

장월중선은 24세 때 단체 생활을 청산하고 시택이 있는 목포로 내려왔다. 목포에서 한갑득에게 1개월간 거문고 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배웠다. 한갑득과 조선창극단에서 같이 수행했다. 이때 약 1년여쯤 산조를 재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또 이동안(李東安, 1906~1995)을 목포로 모셔왔다. 진쇠춤, 승전무, 심불로, 한량무, 태평무, 신칼대신무 등 여러 가지 춤을 여기서 배웠다. 이동안은 장월중선이 신숙과 함께 자신에게 잡가를 배우기도 했다고 말한다. 참고로 목포에서 와서 장월중선을 가르쳤던 이동안은 경기도 화성 출생이다. 12세 때 남사당패에 입단하였다. 1921년 춤의 명인 김인호로부터 신칼대신무, 진쇠춤, 태평무 등을 전수받았다. 1922년에 박춘재로부터 발탈을 배웠다. 1924년에 김관보로부터 줄타기를 배웠다. 1942년 여성국보단체 단장을 지냈다. 1947년 국악음악무용학원장, 1980년 선화예술고와 대성여고 등지에서 무용 강사를 지냈다. 1983년 발탈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장월중선을 통해 이 춤들이 목포에 이입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크게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인 것은 틀림없다.

장월중선이 6·25전쟁의 포화를 피해 오갈치라는 섬으로 잠시 피난을 간 것이 1950년이다. 목포 인근의 섬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겠다. 광주와 전국 유랑에서 돌아와 목포에 정착하게 된 것은 남편 정우성이 목포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2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 어떤 기록에는 남편이 1955년에 위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한다. 슬하에 정순임(1942~)과 정경호, 정경옥을 둔 처지라 살림이 막막해졌다. 그간의 명성을 살려 국악 강습을 해보고자 찾아간 것이 산정동 노인당이였다. 이때가 1952년이다. 노인당 방 한 칸을 빌려 그간 연마해왔던 다방면의 국악을 가르치게 된다. 안향련의 부친 안기선에 이은 공식적인 목포국악 강습소 역할을 한 셈이다.

당시의 목포는 예기조합이 설립되어 일부 한량들에 의해 국악이 향유되고 있었다. 가야금과 춤의 달인인 무안사람 이대조는 이매방의 조부인데 판소리 명인 오수암과 더불어 가장 많이 회자된다. 하지만 예기조합만으로 예술적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목포시지의 강난수가 쓴 기록에 의하면 1940년 7월 10일 죽동 132번지에서 목포 권변을 설립하게 된다. 전술했듯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예기조합을 세웠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원장에 해남사람 김원희(당시 동아고무공업 주식회사 전무)를 추대하고 북과 시가에 능했던 금종철을 총무로 선임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 해방이 되자 목포 예술계가 들썩이게 된다. 예술인들의 내부적 수요 못지않게 사회적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1947년에는 목포 권변의 이름을 ‘악물사’로 개칭하고 원장에 김남기를, 국악강사로는 최막동을 선임한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목포뿐만 아니라 남도의 예술계가 진통을 겪게 된다. 안중근전, 이준

열사전, 유관순전 등 창작판소리 「열사가」를 지어 민족혼을 고무시키려했던 박동실이 월북하게 되면서 난기류가 형성된다. 장월중선을 포함한 남도 대부분의 소리꾼들이 박동실을 거쳐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전쟁 직후 내놓고 「열사가」를 가르치거나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전쟁 후 혼란기를 거쳐 1953년에는 목포악물사를 '정악원'으로 개칭하고 목포시 대성동 노인당으로 옮겼다. 이때 원장이 조병무였고 안향련의 아버지인 광산사람 안기선이 강사로 초빙된다. 1955년 목포정악원을 죽동 노인당으로 옮기고 '목포국악원'으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된다. 원장은 행남사 사장 김창훈이 맡고 장월중선이 강사를, 이인동이 교양부장을 맡아 국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실질적인 목포국악원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목포 국악원이 인가된 시기는 1954년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공식적으로 설립된 시기는 1955년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장월중선의 기록으로 보면 1952년 목포에 오게 되므로 그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3년여의 격차를 두고 그 설립시기가 불분명한 것은 사설 국악원과 공식적인 국악원의 개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장월중선이 세운 사설 학원과 공식적인 국악원이 병존했다는 뜻이다. 어쨌든 장월중선의 첫 제자가 당시 7세였던 안향련이었다. 이후 진도의 신영희, 오비연, 안애란, 오지오, 박계향, 박소연, 백인영 등 많은 제자들에게 판소리, 무용, 가야금, 아쟁, 연극, 농악 등을 가르쳤다. 정순임은 장월중선의 딸로 목포가 낳은 소리꾼이지만 목포에서의 활동이 없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명절에는 제자들과 목포 양조장이나 옥천 양조장 등을 돌며 걸립 농악을 했다. 여기서 쌀과 돈을 얻어와 악기와 의상을 마련했다. 손수 채단과 바느질을 하여 제자들에게 의상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창극 「춘향전」 등을 목포 평화극장 무대에 올렸다. 목포 국악원을 4~5년 운영하다가 노인당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목포 시내 다른 장소에 유달 국악원을 세웠다. 한편 목포시립국악원은 유달국악원을 전신으로 1976년 7월 2일 창단되었다.

장월중선은 1952년부터 1962년까지 10여 년 목포 생활을 했다. 값진 성과는 아쟁산조를 만들어 김일구에게 전수한 일을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낸 일이다. 김일구는 1962년 목포 유달국악원을 찾아가 장월중선을 스승으로 모시고 「심청가», 「홍보가」 등 판소리와 아쟁을 익혔다. 6년간 수업을 했는데 이 기간이 우리 국악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쟁산조의 새로운 유파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일구의 증언에 의하면 민속음악인들이 당시에는 아쟁의 활을 송진 바른 포플러 나뭇가지로 굽어 연주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장월중선의 동생이 바이올린을 전공하였는데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장월중선이 바이올린 활대로 아쟁을 연주해보고 현재의 모양으로 개량하게 되었다. 김일구의 증언으로는 이 시기를 목포 국악원 시절이라고 한다. 목포에서 현재의 가야금 활대가 재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월중선의 아쟁이 김일구에게 이어졌

고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뜻이다. 장월중선 문하에서 박동실제 심청가와 아쟁 산조를 배운 김일구가 이를 자신의 아쟁산조로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장월중선의 목포 생활은 힘들었다. 판소리가 이미 쇠퇴해진 시기여서 생계의 방편으로 삼기가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다. 하지만 판소리로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으니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이후 목포 국악원과 합병을 하게 된다. 장월중선은 목포국악원 시절 제자들에게 박동실제 심청가를 토막소리로만 가르쳤다고 한다. 장월중선이 박동실제를 내놓고 가르치게 된 것은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된 후였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 생활하던 장월중선은 1962년 목포국악원을 제자에게 물려주고 목포를 떠나게 된다. 이후 광주, 곡성, 전주 등지를 돌아 대구, 최종적으로 경주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이외에도 목포에서 직접 활동을 한 국악인들이 많다. 함평 출신의 이조(1880년생)가 국악기를 잘 다루어 명성이 높았다. 해남 출신의 한학률(1915년생)은 이조의 문하생으로 출발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해 냈다. 한씨는 30세 때부터 이조에게 가야금의 잔풍류, 뒷풍류 등을 배웠다. 해방 이후 목포시에서 기악으로 이름 난 사람들 가운데는 가야금, 단소, 세피리를 잘 연주했던 임금돌(1922년생)이 있고 가야금 연주에 신안 출신의 김덕봉(1916년생), 목포국악원에서 강사를 했던 장월중선(1920년생), 목포 출신의 박만윤(1880년생), 양금 연주에 목포 출신의 조준채(1900년생), 젓대(대금)에는 목포 출신의 김상근(1919년생), 거문고에는 진도 출신의 허병수(1910년생), 광주 출신의 임석윤(1910년생), 장고에 해남 출신의 송태선(1919년생) 등을 꼽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목포에서 직접 활동을 했던 소리꾼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향련의 부친인 나주 출신 안기선(1900년생)과 담양 출신이면서 목포에서 소년기를 보낸 신치선이 있다. 신치선은 1920년 20세에 험물사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진도에 들어가 판소리를 가르쳤다. 이후 목포로 다시 옮겨와 안기선을 도와 목포 판소리 발전에 크게 공헌했는가 하면 춘향전을 창극화하여 전국순회공연 및 만주 공연 등을 했고, 1959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신영희는 신치선의 딸로 진도에서 자라다가 목포국악원으로 와서 안향련, 박동애와 동문수학했으며, 여명창 3걸로 불리기도 했다. 목포국악원 원감으로 재직한 장흥 출신 김상용(1920년생)도 주목할 대상이다. 보성의 정응민에게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를 배워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김씨의 문하에서 수학한 이로는 신영희, 안향련, 오비연, 안애란, 박소연, 고법의 해남 출신 추정남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김홍우(1925년생)에 이어 나주출신 안애란이 판소리 사범으로 재직하면서 근래까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된다.

이외 서남해 출신은 아니지만, 목포를 거점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있다. 앞서 서술한대로 김일구는 화순군 이서면 사람인데, 21세 되던 해에 목포에서 국악원을 하던 장월중선에게 아쟁산조를 배워 한 유파를 탄생시켰다. 또 김상룡에게 「춘향가」 등의 판소리를 배웠다. 조상현(1939~)도 26세부터 32

세까지 7년간 목포국악원의 전신인 유달국악원의 판소리 사범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1966년 목포 MBC 국악방송을 전담하기도 했다. 한농선은 1934년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해남의 외가에서 살다가 12세에 목포로 이사하여, 진도 사람 양상식에게 「심청가」를 배웠다.

이들의 음악 세계를 여기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악공연이 이루어진 맥락을 좇아 그들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1926년 조선면작공진회와 전라남도 물산공진회를 축하하는 명창회에서 검무, 승무, 북춤, 가야금, 명창, 새타령, 단가 등을 공연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하지만 지속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 시기 국악공연의 주축은 아무래도 관련 기관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54년 설립인가된 목포국악원이 중심이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1958년 목포 문화협회가 창립되어 국악분과로 입회하다가 1962년에 목포문화협회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목포지부로 개편되어 국악협회 또한 소속분과로 편성되었고 1962년에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춘 임원진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신영희는 안향련, 박동애와 더불어 김소희의 수제자였는데 안향련과 박동애의 요절 이후 판소리 인간문화재를 이어받았다. 백인영은 목포 출신으로 장월중선, 유대봉 등에게 가야금과 아쟁을 사사했다. 목포 지역에서 농악으로 출발했던 김청만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수로 자리를 잡았다. 장월중선의 딸 정순임은 목포시 죽동에서 출생했다. 남동생 정경호, 여동생 정경님, 정경옥 등이 모두 국악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 야외 공연으로는 단연 강강술래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목포예총 보관본 사진자료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실내 강강술래도 매우 성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1930년부터 목포시에서 매우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행 장소는 유달초등학교, 북교초등학교, 산정초등학교, 목포상업학교 등지의 운동장이었다. 본래 서남해 도서 지역의 마을 공터에서 연행하던 패턴이 목포로 이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에는 인근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 197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온금동 일대의 주민들은 1993년까지 수도거리에서 강강술래를 연행하였다. 강강술래는 대회를 통해서도 전승되었다. 1962년 11월 29일 목포사범학교에서 제1회 강강술래회(제4회 목포예술제의 일환)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1973년 10월 6일 제8회 강강술래 경연회(제15회 목포예술제)를 끝으로 대회로서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야외에서 연행되는 전통 공연예술 중에서 강강술래 외에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기금확보를 위해 연행되었던 음악회가 성황을 이루었던 것에 반해 농악놀이 같은 경우는 팔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통예술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그에 따른 소외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외 황맹룡 씨가 이끌었던 ‘다도해 유랑극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서남해 50여 개 도서를 돌면서 공연을 했던 단체였으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장월중선, 안향련과 더불어 복원되어야 할 목포공연의 역사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연장으로 보면, 1971년에는 목포예총회관이 설립되어 목포공연예술의 분기점을 이루었고, 1989년 12월에 착공하여 1997년 9월 29일에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됨으로써 목포공연예술 거점이 일단 확보되었다. 예총 산하의 연극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뿐만 아니라 목포국악원, 민예총, 개별 학원 및 동호그룹 등에서 수행해 온 음악회 및 정기발표회, 연주회, 부정기적 이벤트 등이 방대하다. 일단의 예만 들어도 2010년 문화예술회관 공연이 국악, 뮤지컬, 연극, 음악 등 170여 회에 이른다.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으로 나누어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각각 84회, 74회의 공연을 한 것으로 보고된다. 일제강점기 학예회와 아마추어연극, 국악발표회 등에 비추어 보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셈이다.

2010년 목포·신안예총이 정리한 예술 공연 측면의 사례들을 몇 가지만 거론해보면, 독창회, 찾아가는 예술 공연, 연극제, 무용공연, 음악경연회, 방과 후 발표회, 정기콘서트, 열린 음악회, 판소리발표회, 춤발표회, 목포예술제, 국악경연회, 위문공연, 각종 콘서트, 해외 위문공연 등 장르와 공간, 방법 등을 달리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지속되거나 실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갯돌'의 공연 및 전국마당극제, 시립국악원의 공연, 전남도립국극단의 토요공연 등을 합치면 공연의 횟수는 배가 된다. 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등의 수식어를 달고 있는 공연들이 많은 점으로 보아 현장을 중심으로 공연 기획과 연출, 안무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으로 해방 후의 목포국악사를 요약하여 정리해본다. 1959년에는 목포국악원 임원을 개편한다. 원장에 강진 사람 김현상을 강사에는 남원사람 강도근을 선임했고 강도근 이후에는 순천 사람 박봉술을, 1960년부터는 보성 사람 김상용을 강사로 초빙했다. 정응민의 제자였던 김상용은 이후 1973년까지 강사를 역임하며 목포국악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968년에는 유달노인당으로 이전하였다가 1975년에야 달성동 363번지에 새 건물을 짓고 입주한다. 유달노인당 시절에는 보성사람 조상현이 북과 소리를 가르쳤다. 남자 판소리에는 조상현, 여자 판소리에는 안향련이라고 할 만큼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이들이다. 1974년에는 진도 사람 신영희가 강사를 맡았고 1975년에는 소리에 김흥남, 무용에 장복례를 선임하는 등 세를 확장하게 된다. 당시 장월중선은 따로 나와 유달국악원이란 이름으로 제자들을 양성했다. 장월중선이 목포생활을 한 것이 1952년부터 1962년까지 약 10여 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1962년 이후 장월중선은 광주, 곡성, 전주, 대구 등지를 거치면서 제자 양성이나 국악공연에 헌신한다.

5. 기타 목포의 국악 인물들

본문에서 이름만 거명하거나 인물편에 속하지 않는 기타 목포의 국악 인물들을 여기 수록하여 역

사적 자료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매방 등 무용이나 연극 및 여타 예술계의 인물은 다른 항목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생략한다.

● 박계향(1940~)

목포 출생이다. 아홉 살 때 임방울 협률사 「춘향전」을 보고 반해서 소리를 시작했다. 정명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판소리도 하고 육자배기도 하면서 소문이 자자해졌다. 고모가 박춘성으로 광주시 문화재이다. 정명중학교 2학년 때 보성으로 소리를 배우기 위해 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조상현이 「춘향가」 ‘이별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광주의 안채봉 언니인 안채선이 「심청가」를 배우던 시절이다. 전주 김옥주와 동문수학했다. 뒤이어 성우향, 성창순이 보성소리를 배웠다. 7개월간 공부를 하고 다시 목포 집으로 귀가한다. 목포국악원에서 장월중선에게 「유관순전」을 배우고, 장월중선의 딸 정순임과 연극을 하다가 임춘앵 단체에 합류한다. 그때 박계향의 나이가 열여섯 살, 1955년이었으므로 장월중선이 목포에서 국악원을 연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 안기선(1904~?)

전남 화순 출생이다. 안향련의 부친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안씨 집안은 우리 소리 예술사의 거대한 보고라고 할 만하다. 안기선, 안기옥, 안채봉이 서로 4촌이다. 안기선은 광주의 권변에서 선생 노릇을 했다. 판소리 다섯마당에도 능한 판소리꾼이었다. 안기선이 누구의 소리를 어떻게 전수받았는지 알려진 바 없다. 대개 화순, 나주, 보성 일대의 소리를 전수 받거나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안기옥, 박기채, 박동실 등과의 교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딸 안향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목포에 내려와 기거할 때 아편으로 곤궁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부인이 가출해 버려 안향련을 친구 무안 사람 임상운에게 맡겼다고 한다. 박송희의 구술에 의하면 안기선은 광주 일대에서 소리 선생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당시 광주에서 소리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를 독선생으로 모셨다.

● 신영희(1942~)

진도 출생이다. 아버지 고향은 원래 담양이고 어머니 고향이 진도다. 당시 유랑극단을 따라 진도로 온 신치선이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 정착하면서 신영희를 낳았다. 어머니가 육자배기 등 진도 특유의 소리를 잘 하고 춤도 잘 쳤다. 소리는 열한 살 때부터 했다. 아버지한테 김정문 바디의 「홍보가」, 「심청가」를 배웠다. 「수궁가」는 제일 끝에 ‘의사 줌치 나오는 데」를 배웠다. 뒤에 목포로 나와 열세 살 때 안기선에게 「춘향가」를 배웠다. 안기선이 초기 목포국악원 강사였기 때문에 인연이 되었다. 이

후 목포국악원의 강사였던 명인명창들에게 두루 소리와 춤과 연기 등을 배우게 된다. 강도근 선생에게 「적벽가」를 배웠다. 이후 정음의 최일환에게 「열사가」를 배우고, 장월중선과 창극 「홍보전」을 공연하기도 했다. 장월중선에게 무용, 연기는 물론 「춘향가」 끝부분을 배웠다. 박봉술에게 6개월 동안 「적벽가」를 배웠다. 보성 출신 김상용에게 보성 소리를 배웠다. 1974년 만정 김소희가 목포 공연을 왔을 때 인연이 되어 1975년부터 김소희의 제자가 된다. 「홍보가」, 「춘향가」 등을 배웠다. 1982년에 이수자, 1992년에 문화재 후보(조교)가 되었고 2013년에 김소희를 잇는 판소리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대표적인 제자들로는 서명희, 이주은, 김정희, 한계명, 김백송, 김혜영 등이 있다.

● 안향련(1944~1981)

광주시 광산구 송정리에서 태어나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37세의 불꽃같은 인생이었다. 7세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 목포국악원 장월중선의 첫 제자가 되어 판소리를 배운다. 10대에는 아버지 안기선에게 판소리를 배운다. 10대 후반부터 대략 24세까지 보성에서 정권진, 정응민에게 판소리를 배운다. 김소희와 연을 맺은 것은 1968년 전국국악경연대회다. 이를 통해서 보면 장월중선/안기선 → 보성소리(정응민, 정권진) → 장영찬 → 김소희 → 안향련으로 소리 계보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자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안향련의 소리를 잇는 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후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다 서울로 올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안향련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장월중선, 김소희 외 몇 사람의 남성들이 있다. 슬하에 아들이 있는 무안의 임씨, 박경식, 판소리 명창 장영찬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눴던 화가 모씨 등이다. 장영찬에게서 1963년~1965년 소리를 배운다. 세간에 익히 알려진 안향련의 심청가는 장영찬을 통해 배운 소리이면서 보성소리 심청가이기도 하고 김소희를 통해서 배운 박동실 바디 「심청가」이기도 하다. 「홍보가」는 김소희의 바디 즉 만정제 소리다. 1970~1980년대 온 국악방송을 휩쓸며 국악계의 스타로 군림한다. 1981년 12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였다. 첫 후원자이기도 했던 임씨가 주검을 모셔와 고향 무안의 임씨 선산에 모셨다. 이후 국악협회 전남지부를 중심으로 국악인들이 뜻을 모아 비석을 세워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안향련에 대해서는 왜곡되거나 미화된 부분이 많다.

● 김일구(1940~)

화순 출신이다. 부친 김동문(1917~1964)은 목포에서 활동했던 안기선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다. 20세가 되던 1960년 광주호남국악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대일(孔大日, 1910~1990)명창을 찾아가 「홍보가」를 배웠다. 소리를 배우는 한편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순회공연을 다니기도 하였다. 변성기를 맞이하여 성대에 무리가 생겨 악기를 배우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62년 목포유달국

악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장월중선 명창을 찾아가 아쟁산조를 배우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음악적 과정을 겪으며 성장한 김일구는 장월중선에게 배운 아쟁으로써 오늘날 아쟁산조의 뼈대를 만들게 된다.

● 정순임(1942~)

목포 출신이다. 어머니 장월중선이 목포국악원의 틀을 갖춘 사람이므로 응당 그 영향을 받아 성장했다. 유달산에 올라 판소리 연습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장월중선의 큰아버지가 명창 장판개이며, 장판개의 아들이 명창 장영찬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장월중선에게 박동실 바디 「심청가」를 배웠고, 박송희로부터 「홍보가」를 배웠다. 2006년 박록주 바디 「홍보가」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6. 목포권 한국음악과 공연문화의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목포의 국악은 양악과 따로 떼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만큼 밀접한 교섭 속에서 부침을 거듭해오고 또 한편으로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목포 공연예술의 인적 자원을 분석해놓은 클러스터 계획을 보면, 당시 목포권 예술단원이 총 315명으로 전남권 예술단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는 목포시가 목포권 문화예술 인력의 중심지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주요 도시별 공연예술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 공연예술 단원이 총 640명(2002년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 1만 명당 0.6명인데 반해 목포시의 공연예술단원은 목포시 인구 1만 명당 9.5명으로 서울시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부산, 경기도, 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인구 1만 명당 예술단원 수에 비해서도 최소한 5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준 바 있다. 동호인 그룹과 개별 단위의 공연패를 합하면 그 숫자는 배가된다.

목포권 공연문화산업의 전망에 관해서도 유사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총 15개의 문화산업 중에서 목포권 전문가 집단이 발전가능성이 큰 문화산업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공연산업 분야를(46회, 25.5%)들었기 때문이다. 둘째가 공예, 미술품 분야(42회, 23.3%), 셋째 방송 분야(38회, 21.1%)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연예술분야에 한 가장 높은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특히, 남도 해양문화의 정체성을 산업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 굿, 민요 등 소리와 행위예술을 오프라인으로 할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첨단기술로 산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논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공연예술이 연구되거나 기획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전남 도청의 이전은 이런 계획의 성사를 앞당긴 외적 요인이

되었다. 결국 목포공연예술을 동아시아 및 세계로 발산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목포 국악을 중심으로 한국음악과 공연문화 전반을 개항 이후 시기로부터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그간 100여 년을 훌쩍 넘기면서 목포공연예술 자체가 서남해와 영산강을 짓줄 삼아 전승된 소위 남도문화의 자양분이 이입되어 형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암의 김창조처럼 광주권에서 활동한 명인들마저도 산조라는 장르와 제자들의 활동영역에 있어 목포와 무관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공연예술전통이 단순 이입되었던 것은 아니다. 근대기라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재창조되거나 때로는 뒤튼린 형태로 수렴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수렴은 퓨전 보다는 컨버전스의 형태로 일어났다. 한데 섞여 새로운 장르를 창출하기 보다는 신구가 공존하는 형태로 교직되거나, 섞이지 않고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나왔다는 뜻이다.

목포라는 항구를 기점으로 영산강물이 흘러내려 바다로 흘러나가고 또 다도해 바닷물이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가 내륙으로 연결되듯이 목포는 이들 지역의 공연 예술적 맥락을 수렴하는 공간이었기에 가능했던 장면들이다. 고려시기 나주가 다도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결절지로 기능하듯이, 개항 이후 오늘날까지 목포가 그 교섭의 결절지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항 이후 100여 년이 훌쩍 넘긴 지금, 목포의 국악을 포함한 공연예술은 각 지역들로부터 이입된 원형으로서의 토대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야 하는 과업을 안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기의 국악 및 공연예술을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도 강력하게 습합시켰던 장소가 목포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전은 실효적일 수 있다. 어쨌거나 그간의 목포 공연예술에 관여된 단체와 명인 명창들의 궤적들은 과오를 떠나 존중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공연되거나 6·25전쟁기에 공연되었던 민족적이고 이념적인 공연들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일제강점기의 각 단체나 개별 공연자들, 해방 이후의 예총 산하 공연단체 및 민예총, 목포국악원, 개별 공연단체 등이 모두 나름대로의 역할을 소화해왔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